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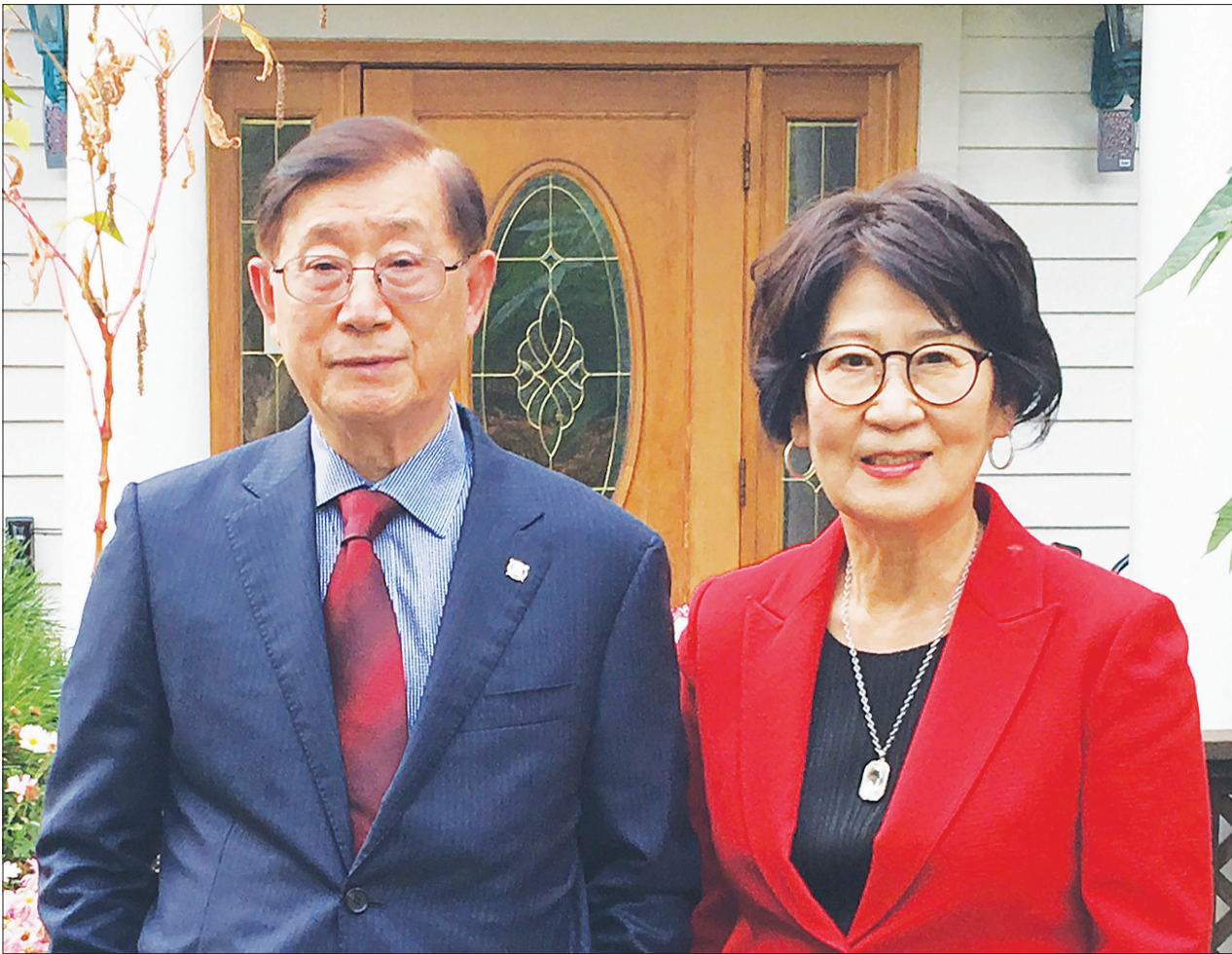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08호 2019년 12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협약식에서 오세정 총장과 함께



허식교수 탄생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왼쪽부터) 허천·박경자 부부, 주중광·허지영 부부

“부친유훈 이어받아 후학육성·나눔실천”

주중광, 허지영 동문, 자연과학대 발전기금 30만 달러 기부

조지아대 약학대 주중광(약대 60) 명예교수와 전 조지아주 총동창회장을 지낸 허지영(화학 66) 동문 부부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발전기금 30만 달러를 쾌척했다. 주중광·허지영 동문 부부는 2012년부터 장학기금을 비롯해 약대 시설확충기금, 허식 교수기금 등 서울대학교에 300만달러를 약정하고 총 25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학장, 박형근 약학대학 학장, 신석민 교무처장, 채

준 (재)발전기금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중광, 허지영 동문은 협약식을 갖기 위해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세계적인 약학자로 유명한 주중광 동문은 1964년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 조지아대 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신약개발에 헌신해 왔다. 주 동문은 B형 간염치료제인 「레보비르」와 C형 간염치료제인 「소발디」 개발로 치료약이 없어 고통받던 1억 5천만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크

게 기여하였고, 2014년 국제적으로 과학적 공헌을 인정받은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더존 A.몽고메리어워드(The John A. Montgomery Award, Anthony Holy Award, and National Academy of Inventors)를 수상했으며 2015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됐다.

주 동문은 부인 허지영 동문과 함께 장학재단인 The Chu Family Foundation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출연한 기부금으로 약학 및

신약개발 연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한국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주중광 Lecture-ship Award'를 제정한 바 있다. 또한 재단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중광 동문은 “먼 타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서울대인으로 모교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고 회고한 뒤 “특히 장인어른이신 허식 교수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하고 기부하게 됐다”며 “우리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모교의 훌륭한 인재를 지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관련기사 4, 5면>

버뮤다크루즈(제29차 평의원회의) 등록마감 - 2020년1월15일

<관련기사 21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리더십 세미나 요약 /



최 윤 박사

Ph.D., J.D.
Patent Agent /
Scientific Advisor
Lucas & Mercanti, LLP

‘한계의 정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

2019년10월14일 서울대 브레인네트워크 강의

■ 내 한계는 무엇인가: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 발판

우리는 과거 경험이나 “내가 아는 나”에 근거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다.

2006년, 내가 일하던 회사는 자금 부족에 직면했고 나는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리를 찾아야 할까? 나는 3개 제약 회사의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고, 다행히 찾을 수 있는 일자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제약회사 연구, 두 번째는 사업 개발 본부, 세 번째는 규제 과학, 네 번째는 특허 관련 일 등. 목록이 내려가면서 내 경험은 줄어들고 다른 시험을 보거나 다른 학위를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격을 다시 갖추어야 할 수도 있었다. 12년 후, 지금 나는 위의 목록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시험을 패스했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또 다른 학위를 취득했다.

나의 경험에 근거한 자격과 한계가 결합되어 현재의 나의 직업을 만들었다. 연구 과학자이자 발명가로서의 나의 경험은 현재의 일은 시작하기에 좋은 기반 지식을 주어 결국 특허 실무자가 되었다. 특허가 내 장래 가능한 직업 목록의 거의 맨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내가 깨닫지도 못 한 사이에, 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로 내 한계를 확장된 것이다.

■ 특허성 있는 인생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부여된 발명에 대한 배타적 권리이다. 특허 심사기준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일부 보편적 표준은 본 특허 신청일 이전에 알려진 개념과 비교하여(1) 특허 가능한 주제(들)이어야 하고; (2) 명확하고; (3) 실시가능하고; (4) 신규성; (5)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본인들의 발명이 독창적이며 독특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가능하다면 발명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 나는 서울대 후배들이 본인들의 삶을 특허성있게,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도

록 만들라고 격려하고 싶다. 모든 사람의 삶은 이미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다. 즉, 누구의 삶도 같지 않고, 비슷하지도 않다. 쌍둥이조차도 그들의 삶이 정확히 겹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공짜로 얻은 이점이다. 성장해 가면서 목표를 실천하여 실현성 등 다른 특허성을 구현하여 더하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는 부모님 친구들의 자녀들(일명 엄친아), 좋은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다. 어쩌면 대부분의 서울대생들

울대생으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럴 필요 없다. 예측 가능한 삶을 통해 얻어진 예상된 성공을 가진 인생은 특허성이 있는 삶이 아니다. 나는 나고,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며, 같은 필요도 없다. 나만의 독특하고 특허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권한다.

■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단지 살아남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계획하지 않았던 다양

었다. 이분은 1957년 약학대학을 졸업한 나의 어머니 김장숙 동문(12회 졸업, 약대)이다.

■ 한계없는 삶의 여정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10년 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지금하는 공부가 인생에서 마지막 공부라고, 마지막 시험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더욱이 현재 사회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같이 얹혀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 지는 것이 추세라는 것은 다 같이 동감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전공의 학문을 학위와 상관 없이 공부해야하게 된다.

나만의 특허성과 진보성으로 경쟁력 갖추어야

서울대 특권 안주하면 진정한 1%가 될 수 없어

나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이 엄친아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에 입학한 후 천천히 앞으로 졸업 후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다.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 세대의 사회가 정의하는 상위 1%안이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나, 내가 30대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중 약 2/3정도가 여전히 그 세대의 1%안에 남아있다고 느꼈고, 40대에 들어섰을 때는, 단지 1/3정도가 상위 1%로 느꼈다. 물론 다른 2/3는 사회에서 정의한 1%는 아니지만 본인만의 1%가 되어 행복할 수 있다.

서울대라는 이름이 주는 특권에 안주하기 보다는 본인만의 1%가 되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계를 만든다. 이렇게 착한 서

한 경력을 쌓게 되었다. 지금 학생들은 이런 일이 나의 세대의 일이고 지금 학생 세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니다. 나보다 30년 앞선 또 다른 선배도 나와는 다르지만 대학에서 전공한 일이 아닌 다양한 경력을 쌓으며 살았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십여년 동안 약국을 운영한 후 전국 약사협회의 여성으로 최초로 회장 대행으로 이끌었고, 그분의 리더십은 당시 행정부에 의해 인정되어, 이후 여성과 전문직 약사를 대표하는 전국구 의원으로 2번의 국회에서 여성들의 문제와 의약간의 문제를 다루셨다. 그러는 동안 사회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사회학 석사를 취득하고,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셨다. 결국 그분은 이후 현재 여성부의 전신인 제2정무 장관직을 맡게 되

내가 현재 제2 부회장으로 봉사하는 재미한인 과학기술자 협회(과기협,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KSEA)도 처음에는 모든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포함하도록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가, 1990년부터는 각각 전문분야가 따로 모이기를 더 선호하여 각 전문 분야 협회와 협력관계를 맺었다가 (APS, Affiliated Professional Society), 지금은 한 회원이 소속된 전문협회의 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다들 서로 일하는 분야가 융합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가는 추세이다. 요즘,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서 학회를 한다.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상호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공 지능 연구가 컴퓨터 학문이 아니고, 생명 과학 연구와 공동연구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신약개발 등의 결과물이 나온다.

후배들이여,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내가 나를 제한하지 말고, 내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본인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특허성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권한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동문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최형무 (법대 69, 법률고문)

조국을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구 소련이 러시아로 전환하던 시기에 현지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며 느꼈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초이니 벌써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당시 같은 한민족 혈통을 지녔으나 여러 역사적 이유로 세계의 여러 곳에서 다른 역사와 현실을 갖고 살아 온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먼 땅 러시아에서도 출신 성분에 따라 서로 차별을 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프셨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 (남한)에서 온 기업인들은 러시아에서 몇대째 살아 내려 온 고려인들을 좀 우습게 보고 차별하고, 고려인들은 고려인들대로 중국 만주쪽에 근거가 있다가 러시아 쪽으로 막 건너 온 조선족들을 좀 우습게 보고 차별하고, 조선족들은 조선족들대로 북한에서 모진 고생을 못 이겨 탈북한 탈북민들을 좀 우습게 보고 차별했다는 이야기이다. 똑같은 한민족의 혈통이나, 힘들고 힘든 역사적 현실에서 오랜 세월 따로 살아 온 형제 자매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 주기는커녕 우습게 보고 차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옛날처럼 전라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해서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면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살아 온 배경이나 출신 여부에 관계 없이, 사회와 국가, 국민이 차별없이 다 화합하고 있는가? 생각이나 견해가 달라도 기본적인 상호 존중을 해 주며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치가들까지 국민들을 화합시키려 노력하기보다는 선동적인 언어로 분열을 더욱 더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차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선친이 일찍 작고하시어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들이 부러워 하던 중, 고교와 대학을 다녀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 때만 해도 사회가 어느 면에서 어리숙하고 소박하여 나같이 어리숙하고 처세 못하는 사람이 발 붙여 살 수 있었던 세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념으

론 분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달린 국가 간의 외교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긴다고 했다. 이 말은 나를 잘 모르고 적을 잘 모르면 싸움에서 이기기 힘들고 늘상 지게 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치열한 외교의 전장터에서 살아 남으려면 다른 나라를 적으로 간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로 알고 이 경쟁국들 중에 어느 쪽이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느 쪽이 다른 가치

다. 또한, 어떤 상대국의 현 정치 지도자의 언행이나 행태에 너무 집중하여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전부 “우군” 또는 전부 “적군”으로 착각한다면 역시 상대방을 잘 모르고 쉽게 접근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요즘에 이른 바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 라고 해서 상대국 여론이나 여론 조성층에 직접 소통하여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가적인 현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정말로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이라는 나라들을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분열되어 나와 생각이 같으면 다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잘못되었다는 자기만족이나 나르시시즘에 빠져 국민끼리 서로를 차별하면서 심지어 엄중한 외교의 현실에까지 이를 적용하려고 하여 각자가 다른 나라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판단하고 차별하며 나라 이익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마저 나라의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는 보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또 반대자들은 반대자들대로 매우 근시안적으로 비판하고 선동하며, 진보다 보수다 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호 존중마저 없이 서로를 차별하고, 또 외교에서는 국익에 관계없이 나라에 따라 차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들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외교적인 현실이 있다면, 국민들이 화합을 이루어 경제적인 발전뿐 아니라, 핵 무기의 현실에서 국가적인 생존과 안보를 지켜 나가기 위한 외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외교에서의 차별의식, 국가적 이익 저해

국민적 화해 그리고 국익을 위한 외교 상호 존중으로 국가 안보·경제 지켜내야

로 2백 30년전에 나라를 세웠으나, 과거 흑인 노예 제도와 영토 확장을 위한 원주민 학살이라는 역사적 원죄가 있음으로 법적으로는 많은 것이 정비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듯 차별과 분열로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트럼프라는 부정직하고 선동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정도로 타락한 정치 풍토에, 지난 수년간 위에서부터 국론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보고있다.

이 차별이라는 현상은 비단 국내적인 국

관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 이 경쟁국 또한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터이니, 서로의 이익의 합일점 또는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찾아 가는 것이 최선의 외교일 것이다. 과거에 외교의 뒤에는 항상 군사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지금도 진리이기는 하나 21 세기 세계는 국가와 국민들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상호 의존적인 세계가 되어 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을 상대하는 데도 뿌리깊은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을 잘 모르고 쉽게 덤비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70년전 헤어진 아버지, 모교서 찾았죠”



아버지 허식교수와 어머니.

허지영 동문, 아버지 허식 교수 6.25때 납치

70년만에 서울대서 아버지 집필 자료 발견

‘탄생 100주년’ 수리과학부 심포지움 개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생사에 대해서도, 또 만약 전쟁 후에 생존하셨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서울대 자연과학부대학 수리과학부를 조금이나마 도울수 있음을 무한히 감사한다...”



허지영(문리대 66)

우리 아버지는 6.25 한국 전쟁때 서울대학교 문리대 수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시 문리대 교정에서 납치되었다.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만 31세.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청년 가장이었다. 그 후 조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우리 두남매는 외아들, 남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조부모님은 6.25 동안 몇년후에, 어머니는 2007년에 타계하셨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궁금함이 오랫동안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1950년 6.25 한국 전쟁전의 아버지의 행적을 접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여러번의 연속된 우연으로 필연의 결과를 낳는다고. 내가 2018년 미주 동창회 조지아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해 9월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전 문리대 수학과) 교수이신 김판기 기획 부학장께서 조지아에 거주하는 문리대 졸업생들의 명부를 보내 주십사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재외에 계신 동문들의 주소록을 작성해서 문리과 동문들의 체계적인 연락망을 설치하겠다는 목적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6.25 동안 발발 직후에(1950년 7월초라고 추정됨) 납치 되셨고 동란전에 서울 대학 수학과에 재직하셨다는 말씀을 어렸을때 할아버지와 어머니로 부터 듣고 자랐기에 이 기회에 수리 과학부 김판기교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2018년 10월에 한국 방문때 뵙기를 부탁드렸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재직중인 오빠 허 천교수(공대 화공과 60학번)는 2018- 2019에 서울 공대에서 1년 동안 연구차 한국에 있어서, University of Georgia에 재직중인 남편 주중광 교수(약학대 60)와 함께 2018년 10월에 수리과학부를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방문했을때 김판기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문만용, 김영식 저), 대한수학회사 제 1권 등에서 발견된 아버지께 관한 자료를 모집해 복사본을 주셨다. 오빠

도병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일본 총독부방침에 따라 차출되어, 일본 지바현에서 사관생 훈련을 받고, 1945년 6월에 소위로 임관되었고 다행히 전라도 광주에 배치되었다가, 1945년 8.15 해방을 맞았고, 일년 남았던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서울 공업고등학교에 교사로 잠깐 교편을 잡았고 연희 대학 전임이 되었다. 1946년 9월에 서울대학교 수학과 학과장이신 최윤식 교수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2학년으로 편입하여 1948년 8월에 학사학위를 받으셨다.

해방후 극심한 혼란기에 일본인 수학교수

님은 본인께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니실때 아버지의 수학 강의를 들으셨다고 저희에게 전해 주셨다. 2018년 10월 말에 오빠와 남편과 함께 찾아 뵈었을때, 김호정 교수님은 오빠를 보시며 “자네 부친을 뚝 닮았네” 하시었다. 70년이 넘었는데도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했을 따름이다.

이후 아버지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종로구 적선동의 셋방에 살면서 중등 수학 1, 2, 3학년 교과서를 집필하여, 6.25 사변 직전인 1950년 봄에 출간하여 많은 학교에서 수학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교과서에 있는 저자 약력과 머리말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제자들에게 진심어린 교훈이 담긴 글이었다 (사진 참조).

오빠는 아버지가 무더운 여름에 옷통을 벗으시고 적선동 셋방에서 연필과 자를 가지고 수학책을 집필하셨다는 어렸을때의 기억을 들려주었다.

곧이어 6.25 사변이 나고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였을때 서울대 학생과 교수들에게 학교로 모이라는 통고를 받아 출근한 날 이후 가족들은 아버지를 뵙지 못하였다. 어머니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 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면서 조부모님과 남매를 부양하시며 가계를 꾸려 가셨다. 근 70년이 지나서 아버지의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재직 하셨을때 행적을 알게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는 고난과 역경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신 아버지께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리 과학부 교수님들도 저희와 함께 기뻐해 주셨다. 마침 2019년 올해가 아버지가 생존하시면 100주년이 되어서, 사위인 주중광 교수와 함께 탄생 100주년 수리과학부 심포지움을 제안해 주시고 오병권 수리과학부 학부장과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성대하게 기획하여 주시고 2019년 10월 24에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셨다(사진

학생 신분으로 문리대 전임강사로 활동

적선동 셋방서 중등수학 1,2,3 교과서 집필

혼자된 어머니, 매점 운영하며 자녀들 키워내

아버지 뜻 이어 ‘허식 교수 장학금’ 등 지원

가 노란색 펜으로 highlight 된 아버지에 대한 글을 감격으로 목이 메인 소리로 읽었을 때에는 오랫동안 그리워 하던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된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1919년 3월, 일제의 억압에 대응해 우리 민족이 3.1 독립운동으로 한바도가 격동하던 때에 독자로 태어나셨다. 초등학교 졸업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중,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지만 독학으로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경기도 오산 초등학교에 교사로 봉직하셨다.

1940년 4월에 결혼을 하고 9월에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셨다. 1943년 연희전문 3학년때에, 1학년만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학

들이 모두 일본으로 떠나서, 서울대 문리과 대학에 교수진이 부족하여서, 예과의 수학 강의는 아버지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희 전문을 졸업한 경력으로, 유일한 전임으로 가르치셨고(대한수학회사 제 1권 pg 42), 1948년 졸업후에는 수학과 3학년의 ‘적분론’ 강의를 하셨다고 한다[한국 근대과학 형성자료(문만용, 김영식 저 pg 13-15)]. 그 당시 전임강사의 월급이 최저 생활을 하기도 미흡하였기에, 경기고등학교 시간강사로 일하며 부모님과 처자식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그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오빠와 저를 두셨다.

내가 졸업한 문리대 화학과에서 양자화학을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김호정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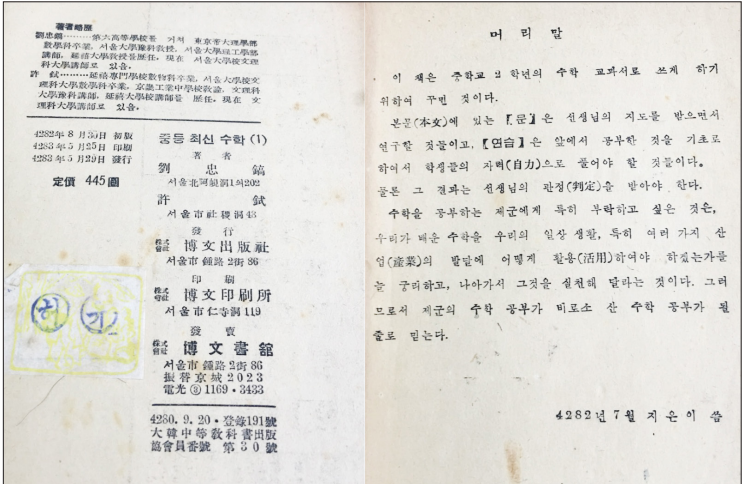
▲아버지가 집필하신 중등 교과서 1,2,3 ▶중등 최신 수학 1,2,3 교과서의 저자 약력과 머리말

첨부). 도와 주신 모든분들과 참석하신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포지움에서 한국 수학 역사에 대해 강의하여 주신 김도한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오빠는 대학 1년에 입대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 졸업, 유학, 나 역시 대학 졸업 후 유학으로 실새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고,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새삼 우리의 삶이 전 세대 사람들의 피나는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룬 결과가 밑거름이 되고, 또 지금 세대에도 여러 분야에서 아버지과 같은 많은분들의 노력으로 우

리 사회가 어려운 중에도 잘 유지되고 향상되고 있음을 재 인식하고 숙연해진다. 후학 양성을 위한 아버지의 뜻과, 조부모님 부양과 저의 두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생을 헌신하신 어머니을 추모하기 위해 *The Chu Family Foundation 에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에 “허식 교수 장학금” 과 “이순동 여사 교수후원금” 을 설립해서 매년 학생 장학금과 교수학술기금을 10년 동안 지급하기로 협약하였다.

끝으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생사에 대해서도, 또 만약 전쟁 후에 생존하셨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조차도 모



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서울대 자연과학부대학 수리과학부를 조금 이나마 도울수 있음을 무한히 감사한다. 아버지의 행적을 축하하는 탄생 100주년 심포지움을 보지 못하시고 2007년에 타계하신 어머니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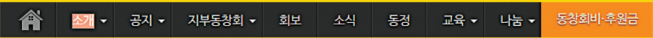
불행했던 한국의 역사속에 안타깝게도 희생되신 아버지, 그리고 57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셨던 어머니의 불행했던 Chapter 를 이 지면으로 맺음을 지으며, 우리 남매와 가족들은 훌륭하신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존경과 큰 자부심을 가진다.

*The Chu Family Foundation은 남편인 주중광 교수와 함께 2011년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인재교육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미국에 8개 대학, 한국에 2개 대학(서울대 포함)과 미국 조지아의 한글 학교에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6.25 동란에 참전한 미 참전용사들의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적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로 조지아 주에 적을 둔 그들의 직계 후손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하여 매년 12-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동창회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을 보내시는 방법

Option 1. 온라인 납부 (동창회비)

Donate

- 위의 "Donate"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웹사이트 (PayPal)로 이동합니다.
- 결제 웹사이트에서 \$75, \$150, \$200 버튼 또는 원하시는 후원금 액수를 입력합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하려면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눌러주세요.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사진 위)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나>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

United States

Card number

Expires

Security code

First name

Last name

Billing address

Street address

Apt., ste., bldg. (optional)

City

State

ZIP code

<다>

Contact information

Mobile

Phone number

Email

☐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

View PayPal policies and your payment method rights.

Donate Now

Cancel and retur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4. 그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4.

You've donated \$ US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We'll send you back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in a few seconds.

5.

감사합니다!

후원하신 후원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라: 이창길(자연 85) 사무총장

김수영 동문 '캐나다 민초 해외문학' 대상

<사대 57>

'제12회 민초 해외문학상' 수상자로 김수영 동문이 선정, 시상식이 지난 10월 12일 저녁 캘거리 센트럴 그랜드 중식당에서 열렸다. 민초 해외문학상을 제정해 운영하는 캘거리의 이유식 시인은 "김수영 수상자는 폐결핵이란 질병을 이겨내고 문학의 꿈을 키워 오셨다"고 소개했다.

김 시인은 "나이 70에 등단했고 시를 쓴 지 약 10년 밖에 안 돼 모든 면에서 미국한테 상을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라며 "81세에 시인으로서의 꿈을 이룬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을 받은 시의 제목은 '어머니의 굶은 등'이다.

지난 2008년 제정 이래 올해로 제12회째를 맞은 본 민초 해외 문학상은 그 동안 캐나다 거주 한인 동포와 미국 거주 한인 동포가 각각 3회씩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중국-독일-러시아-브라질-몽골-호주거주 한인 동포가 각각 1회씩 수상의 영광을 나



눠 가졌다.

민초 해외문학상은 캘거리 교민인 이유식 시인이 지구촌 740만 해외 한인 동포들의 민족 정체성 고양과 고유 문화의 승계 발전에 일조하고자 순수 재원을 출연해 직접 제정·설립한 상이다.



(왼쪽부터)임용 학생부 원장, 장승화 법대 원장, 최진석 남가주 법대동창회 회장부부

LA세미나 강연 · 동창회 교류 등 논의

최진석 남가주 법대동창회장, 장승화 서울법대전문대학원장 방문

지난 10월29일 남가주법대 동창회 주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법대 81) 원장 초청 강연 세미나를 위해 남가주 법대 동창회 최진석(법대 64)회장이 원장실을 방문했다.

장승화 원장과 최진석 회장은 2020년 2월에 개최 될 남가주 서울대 법대 동창회 세미

나 강연, 서울대 Law School 발전 현황 설명 및 Fund Raising, 법대 Network 구축, 서울대 Law School 과 남가주 법대 동창회와의 교류를 통한 모교 발전 기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남가주 법대 동창회 정인환(법대 54)이사장의 서예 족자(인연의 소중함)를 기증하기도 했다. <조직국장 백옥자>

서울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

동문자녀 특별 장학금 혜택

'외국인과 재외교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요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별히 미주동창회를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 미주총동창회 추천 우수 동문자녀에 등록금 전액 감면 등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언어교육원 장소원 원장은 "시대 변화를 예측하고 이끄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미주동창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재학한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조 23면>

■ 50여 년 전통의 한국어교육기관

1963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 1969년에 정식으로 개원한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았다. 본 센터는 그동안 외국인이나 재외교포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왔다.

■ 우수한 교수진

80여 명의 전임 교수진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다년간 한국어교육에 종사해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다.

■ 세계 110개국, 3,000명의 학생

매년 세계 각국에서 온 3,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본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다. 특히 예일대, 도쿄대 등 유수 대학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기타 국제 교류재단, 미국 DLI(미국방성프로그램) 등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정을 맺고 외교관, 공무원 과정을 운영해 왔다.

■ 문화체험과 서울대 버디프로그램

한국어프로그램별로 태권도, 서예, 사물놀이, 요리실습, DMZ 견학, K-pop 댄스 등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대생을 버디로 연결하여 학생들 간의 교류를 돕고 있다.

■ 다양한 한국어 프로그램

정규과정은 6개 급으로 10주동안 진행된다. 기타 3주·5주·15주 등 특별과정이 있다. 내년 3월에 개원할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한국어교육센터 분원에서는 스마트 과정, 진학 목적 과정, 2주 스마트 초단기과정 등이 운영된다.

■ 교재와 편의시설

관악캠퍼스 137동, 137-2동에 위치한 본 센터에는 LAB실, 도서실 라운지, 카페테리아 등 시설과 기숙사가 갖춰져 있다. 서울대 한국어, 사랑해요 한국어, 진학 목적 한국어플러스, 한글용 앱교재 등 각종 교재가 개발되어 사용된다.

■ 한국어교육센터의 현재와 미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공부한 연평균 3,000여 명의 학생들은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길러낸 서울대 언어교육원은 앞으로도 한국어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지원은 <http://lei.snu.ac.kr> 문의는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82-02-880-5488 또는이메일 klp@snu.ac.kr로 연락하면 된다.

송수 동문 '최우수 여성 리더십상'

<간호 66>

전미대학여성협회 선정

워싱턴 지역 동창회 31대 회장을 역임한 송수 동문이 전미대학여성협회(AAUW) 하워드카운티 지부에서 선정한 '하워드카운티 최우수 여성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AAUW는 27일 오후 콜럼비아 소재 미팅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송 회장이 한인 사회는 물론 커뮤니티 발전과 권익 옹호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선정됐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한인으로 상을 받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지역 한인 사회는 물론 커뮤니티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동문은 1970년 도미, 아이오와대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사우스이스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워드한인회장을 역임한 송 회장은 하워드



카운티재단과 보건국 이사로 활동하며 한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간호학 교수로 재임하며 서울 성균관대와 충남대에서도 강의하고 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최규용 동문 '자랑스런 워싱턴인 어워드' 수상

<공대 72>

<Outstanding Washingtonian Award>

“명망있는 공학자 겸 한국학교 발전 선구적 역할” 공로 인정



포토맥 포럼 '제2회 자랑스런 워싱턴인 어워드'에 선정된 최규용 교수(메릴랜드대·공대 72)에 대한 시상식이 16일 열렸다.

이날 최 동문은 공동 선정된 노영찬 교수(조지 메이슨대)와 단체 공로상으로 선정된 글로벌 어린이재단(GCF)과 함께 시상식대에 올랐다. 메릴랜드 대학 공대 비엔나에 있

는 웨스트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1천달러씩의 상금, 글로벌 재단은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목)이 제정하고 한국일보가 특별후원한 어워드 시상식에서 이영목(공대 59) 회장은 “이 상은 자랑스러운 워싱턴인들을 찾아 그분들에게는 현재 삶의 자취를 흐뭇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박수를 보내며 지역사회를 더 밝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해식 선정위원은 “최규용 교수는 명망있는 공학자로, 또 성 김안드레아한국학교 교장으로 활동하면서 워싱턴 지역은 물론 미

주 한국학교 발전에도 선구자적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보고했다.

최 동문은 “우리 한인 2세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문화의 우수성, 진수를 잘 전수시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자긍심 고양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피력했다.

최 동문은 메릴랜드 대학 공대 교수로 재임 중인 공학자로,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으로 11 년간 활동하면서 다른 한국학교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삼일절 만세운동과 직지심경 등 체험 한국사 교육, 바른 절하기 등의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자체 한글역사책 발간 등을 통해 워싱턴 지역은 물론 미주 한국학

교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득환 총영사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이상이 젊은 세대와 미주동포사회의 귀감이 되고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해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랑스러운 워싱턴인 어워드는 올해가 2회째로 지난해에는 조영진 목사가 대상, 이광자 이사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행사는 오인환(문리 63)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원태민씨와 곽태조 씨의 축하 연주도 있었다.

포토맥 한국포럼

포토맥 한국 포럼은 지난 2017년 4월에 발족한 단체로 워싱턴 지역 지성인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매달 두번째 목요일 11시에 설악가든 연회실에서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경제 및 금융 등등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받아 왔다.

이영목(공대59) 서울동창회 제8대회장과 오인환(문리대 63) 제12대 회장이 각기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포럼의 연계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워싱턴인 상(Outstanding Washingtonian Award)를 제정하고 인선위원회를 만들어 워싱턴 동포분들과 언론기관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작년 1회 때 2명, 금년에 2명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이 포럼의 8인 임원 가운데 김해식(공대 59)동문과 유홍렬(자연대 74) 동문도 함께 봉사하고 있다.



수상자들과 심사선정위원들. 왼쪽 다섯번째가 최규용 교수.



북가주총동창회 2차 이사회 개최

임준원 부회장, 차기 회장 후보자 추대

서울대북가주총동창회(회장 곽준경 법대75, 이사장 강정수 문리대 61)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전체회의가 2019년 11월 18일(월) Los Altos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이사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정수 이사장이 동창회 발전 및 활성화에 여러가지로 지원과 조언을 주신 이사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인사말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2019년도 북가주동창회의 행사 활동(야유회, 골프대회)과, 회계 및 재정현황 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예년에

비해 동창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앞으로 있을 행사 홍보와 준비에 동문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차기 북가주동창회장 후보자로 임준원 부회장(공대 77)을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12/7)에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덕담을 미리 교환하면서 송년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 기원하였다.

워싱턴주 동창회 'SNU포럼'

‘추억의 팝송과 인문학’ 세미나

워싱턴주 동창회에서 “추억의 팝송에 얹힌 인문학적 요소”를 주제로 10월 12일 뉴캐슬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작년 봄에 시애틀을 방문하여 추억의 팝송에 얹힌 이야기를 곁들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강의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팝 칼럼니스트 박길호씨가 다시 시애틀을 찾아, 영미의 대중음악인 팝송에 내재되어 있는 인문학적 내용을 주제로 시애틀에서의 두번째 강의를 SNU 포럼에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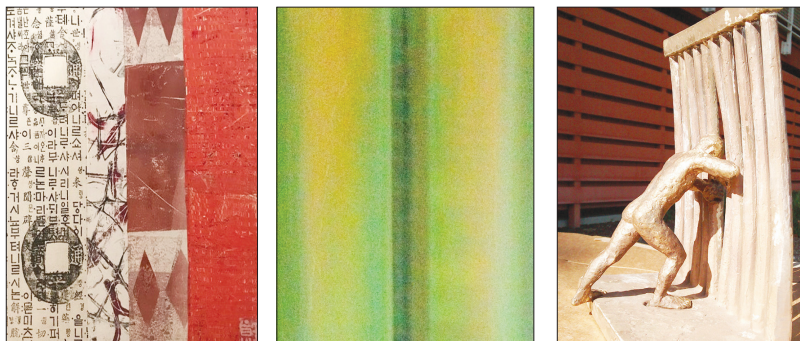
강의는 단순히 팝을 듣는 것이 아닌 작곡

가, 가수, 작사가, 시, 영화, 신화, 미술 등 다양한 주제를 노래와 결합해서 소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비운의 복서 죽음과 비평가에 대한 반격을 곡으로 승화시킨 Paul Simon ▲사랑과 이별의 슬픔을 담은 Abba 명곡 이야기 ▲2차대전 전쟁영웅 O'Hare와 부자의 정 ▲그리스가 낳은 위대한 가수 Nana Mouskouri ▲심오한 가사를 지닌 팝 명곡 해설 ▲Blue-eyed Soul Singer 이야기 등이 소개되었다.



/ 남가주 미대동문회 소식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김경옥, 김윤진, 노성인, 윤태자, 구동성

수준높은 동문 작품 한자리에

작가 총 26명 참여... 50여점 선보여

제 17회 남가주 미대 동문작가 전시회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LA한인타운에 있는 파크뷰 갤러리(2410 James M Wood Blvd. LA)에서 열렸다.

19일에는 서울대 남가주 동문들을 포함한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총 26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여러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들도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여러가지 기법을 사용한 회화작품을 비롯해 조각, 건축, 공예 부문에 이르는 50여점의 작품들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의 참여 작가는 백혜란 미대 회장을 비롯해 김화자, 윤태자, 한석란, 신정연, 손남수, 서동현, 김윤진, 홍선애, 신혜자, 신동인, 김경애, 강영일, 김구자, 장원경, 김영희, 김경옥, 성수환, 노성인, 박영규, 이명규, 김영태, 신덕재, 박수삼, 한귀희 등이다.



가을총회 개최... 백혜란 회장 연임

남가주 미대 동문 가을 총회가 제 17회 동문전의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파크뷰 갤러리(2410 James M Wood Blvd. LA)에서 19명의 미대 동문이 참석하여 2019년 후반기를 결산하는 모임을 가졌다. 2020년 회장으로 현 백혜란 회장의 연임이 결정되었으며, 일년을 마무리하고 다

가오는 해에 있을 옥션과 동문전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해가 거듭할수록 작품활동이 뜸했던 동문들의 참여가 늘어난 올해의 미대 동문회를 평가하면서 밝은 전망에 대한 기대가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밝게 만든 2019년의 마무리 모임이었다.

‘물리학 박사’에서 ‘사진작가’로

이기우 동문 사진전 개최

<문리 67>

물리학 박사에서 사진 작가로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이기우 동문(문리대 67)의 개인 사진전이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베데스다 어반 파트너십 갤러리에서 열렸다.

<Time, Space, Matter and Beyond>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애리조나, 유타, 아이슬랜드 등의 경관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은 ‘호기심’이 예술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이 동문은 전시 프로필을 통해 “위대한 풍경 앞에 혼자 서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맞이한다”



며 “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완벽한 연결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리학 박사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 동문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스테리함에 매료되어 사진 작가로서의 꿈을 발견하고, 현재 서울, 워싱턴 DC, 뉴욕 등 세계 각곳에서 전시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시카고 동창회 ‘관악클럽’ 모임

지난 10월 19일 할매보쌈에서의 관악클럽 모임이 있었다.

볼티모어에서 2년 전 시카고로 이주해온 김정은 후배가 처음 관악클럽에 나오게 되어,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특히 같은 음대

출신인 이소정 선배와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외 선택수 조현아 선배님의 아들이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김수현 동문>



우측 정면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봉윤식, 김훈태, 선택수, 황찬주, 김동엽, 김수현, 김정은(신인 회원, 04학번 기약/고고미술사학과), 이소정, 조현아.

/ 작가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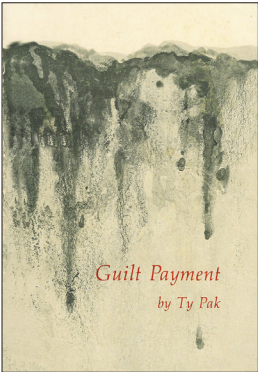
문학 통해 한국 역사와 이민자 애환 알린 소설가 박태영 (법대 58)



주류사회 원로문인으로 활동 중인 한인 1세 작가 박태영(Ty Pak, 58) 박 동문은 1938년 출생, 해방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체험하고 전쟁으로 부친을 잃은 전쟁 1세대이다. 1961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영문 일간지 Korean Republic과 한국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한 바 있는 박 작가는 1965년 미국으로 이민 와 볼링 그린 주립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하와이대학에서 1970-1987년까지 영문학과 교수로 재임하다 조기은퇴를 선언하고 문단에 들어섰다. 미국생활 어언 43년이 되고 있는 박 작가는 1980년 그의 첫 영문소설 ‘Fire(화재)’를 필두로 ‘Guilt Payment(1983)’, Cry Korea Cry(1999), 그리고 ‘Moonbay(1999)’등의 소설을 통해 이민자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단편집 Guilt Payment (1983)은 미국 우수 대학에서 교재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단편집 Moonbay (1999)에 수록된 ‘The Court Interpreter’는 2019 UCLA 영문과 필수 교재로 채택된다. 박 작가가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어릴적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선친(박종래)이 미군병사와 유창하게 대화하는 것을 본 이후 영어라는 미지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고 영어가 능통했던 선친을 언제나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Guilt Payment

13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단편모음집으로 각각의 이야기는 모두 한국전의 트라우마를 안고 미국에 이주해 살고 있는 한인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각 단편의 주인공은 다양한 이름을 가진 1인칭 내지는 전지적 화자로 등장하지만 모두 작가 자신의 또는 전쟁을 겪은 동시대 사람들의 경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하나의 모범적인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하나의 트라우마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대 Sam E. Solberg교수는 이 책에 대해 “어느 한국계 미국인이 쓴 것보다 잘짜여진 작가의 이야기들은 분단, 전쟁, 온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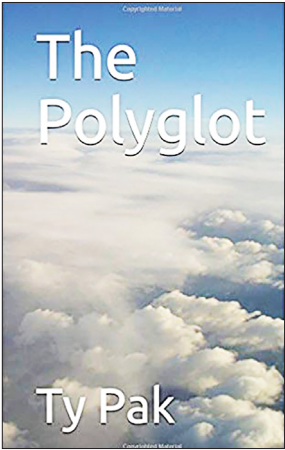
못한 조국에 태어난 한 세대의 한인들이 그들을 가로막는 정신적, 육체적 공허와 상처를 단호히 직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역역히 그려내고 있으며 모험담같은 박진감 넘치는 필체로 액션영화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독자를 쥐락펴락하는 구상의 기발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The Polyglot

이 소설은 주인공 피터의 출생 1919년 부터 조선이 현대에 눈 뜨는 1960년도가 배경이 되는 소설이다.

생생하게 그려진 인물들로 엮여지는 이야기 첫 줄거리는 선명하고 기발하다.

27세의 총명한 외과의 인아는 2살짜리 아들 피터를 데리고 시인인 그의 남편 종내를 찾아 일제 치하 조선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왔으나 다른 여자 인순과 결혼해 뱃속에 아이까지 있음을 알게 된다. 인순이 인아 머리에 권총을 대고 종내를 포기할 뿐 아니라 피터도 자기들에게 맡겨 곧 태어날 아이와 같이 기르게 하지 않으면 당장 두 모자뿐 아니라 자신과 태아 그리고 종내도 집단 자살하겠다는 위협에 인아는 굴복한다.



본인이라는 피터의 진짜혈통이 드러난다. 눈에 확 띄는 소설의 소재, 조선과 일본의 연합의 적절성이 부각된다.

남한 미대사로 임명되었으나 그가 받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한일 양국에서 반발이 충천하자 피터는 그들에게 자기를 그들과 반은 같다고 외친다. 피터는 한일 양국은 연합할 것이며, 영국 연방 같은 의례적 교우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기능적 정치체제로 되라고 권유한다.

피터가 많은 인명을 건지는 계기가 되는 스탈린이 강행한 시베리아 토착 조선인 중앙 아시아 축출, 중국과 러시아의 조선 적화 작전, 2차대전 결과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 일본의 경제적 재할, 이 모두가 환경의 지배하에 16개 언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는 엄청난 천재 피터로 하여금 한국 전쟁 이전, 도중, 또 이후에 각종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게 만들며 미묘하게 진행된다. 그러다 피터의 소련 신분증이 가짜임이 드러나며 그의 정체가 산산조각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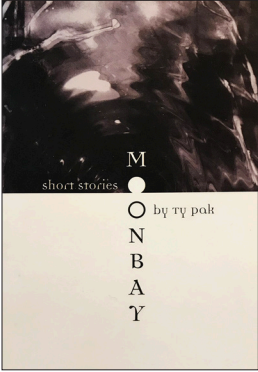
소련 감옥에서 죽었다고 추정되던 피터의 시인 아버지는 미국에서 어느 대학 문학교수로 있다가 피터에게 연락 후 신장 부전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그를 살리기 위한 신장 이식 운동으로 그의 친부가 일

전 NYU 대 심리학 교수이며 YMCA 국제부 담당자였던 Paul H. Sharar 박사는 “선명하고 기발한 이야기 줄거리이다. 최상 지배층에서 최하 대중에 이르는 인물들을 다루며 인간 타락의 바닥까지 캐내는가 하면 고귀의 정상까지 치솟아 조명하는 임상적, 사실주의적 초연이다. 다양한 국가, 언어, 문화를 포용하는 참된 지구촌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소설의 진정한 지구주의”라 표현했다.

작가는 우리들에게 지역적 지정학적 편의를 떠나 모든 나라와 언어, 문화를 지구적 공동체로 구축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만든다.

Moonbay

이 책은 전쟁, 이주, 차별, 화해를 작가 특유의 섬세함과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7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이다. 원래 악하지만 사회 그 자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Moonbay’, 선행을 실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운명의 줄개가 되어 전쟁의 폭력에서 운 좋게 살아난 ‘the Tiger Cub’, 손가락 장애가 치유자와 순교자로서의 운명을 점하는 그리스도 같은 ‘Gardener’, 인종 차별주의자인 조지 맥더프 일병을 받아들이는 3세대 한국계 미국인 장교, 백인 학생과의 관계가 아내의 죽음으로 이어져 죄책감에 젖은 한국계 미국인 교수, 서로간의 인간애를 인정



이주, 생존, 그리고 자존심의 딜레마를 탐구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아이러니들에 잘 어울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며 뒤로 물러나는 비엠크공과 한국계 미군 등을 다루고 있다.

작가의 냉철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는 한국계 미국인의 역사, 국가적 명성,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 선교이야기 /



김현영 (수의대 58)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Beyond the American Dream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다

미국 역사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는 많이 변화 되어 왔다. 처음에는 신대륙에 대한 신비감으로 땅 소유 가능성과 무한 발전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미국 주류층의 문화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나는 1971년 1월 15일 University of Georgia에 유학을 위해 아내와 한살 된 첫아들과 함께 3식구가 애틀랜타 국제 공항에 도착 하였다. 그후 University of Georgia와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수의사 시험에 합격 면허를 획득하고 또한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여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공무원이 되었다.

아내는 미국 대학에서 Medical Technology를 전공 졸업 하였다. 큰 아들은 의사,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다.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가정이 된 것이다.

우리부부는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하였다. 우선 미국인들의 중심이 된 미국장로교(PSUSA)에서 예배 드리며 그들의 신앙생활과 세계관을 배웠다. 큰 아들이 도시 근교 백인 공립 고등학교를 다닐때는 그 학교가 속한 교육구의 교육감 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미국 백인 사회 교육 세계관을 배웠고 동시에 한국 교육관을 소개했다.

1988년 4월16일 토요일은 이민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였다. 첫 아들의 노스웨스턴 의과대학(HPME)으로 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은 날이었다.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은 물론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새로 뿌리 내리는 가족 역사의 성공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아메리칸드림을 넘어서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은, "for their experimental approach to alleviating global poverty" 즉 범세계적 빈곤을 줄이는 연구에서 큰 성취를 이룬 업적으로 노벨상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업적을 보면 굉장한 것이 아니라 인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및 예방의학, 농산물 증산, 실질적 교육을 통해 마을을 변화 시키는 실험적 연구인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이 거대한 이론이 아니고 가난한 나라 마을의 직접 들어가 빈곤의 원인을 캐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것에 감동과 격려를 받았다. 왜냐면 우리 부부도 현재 아주 가난한 과테말라

마야원주민 마을에서 젓염소를 분양하며 농촌개발사업에 참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에는 7억 인구중 700만명이 극심한 빈곤층에 살고 있다. 그들의 하루 생활비는 \$1.90이다.

과테말라에는 60% 이상이 가난한 마야 원주민 농민들로 대부분 빈곤층에 속해 있다. 빵과 복음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동시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먹고 살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 는 정신과 기술을 가르쳐 주

은 비가 많이 내려 풀들이 잘자라서 농축산업이 발전한 곳으로 산칼로스 국립대 북부 캠퍼스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 대학이 있는 교방으로 들어가는 도로 우측으로는 굉장히 넓고 긴 평야로 된 계곡이 있는데 풀이 잘 자라고 젓소들이 많이 사육 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하이퍼 인터내셔널 선교단체를 통해 우리를 교방지역으로 선교현장 답사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부부에게 선교 할 현장을 보여 주시고 선교지로 결정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년후인 그 이듬해



▲마야 원주민 젓염소 분양 대학 교수들과 함께.
▶필자가 발간한 '선교용 젓염소 기르기' 책 표지.

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케 하고 교회를 개척 양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1960년 4.19시절 대학생이었다.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GNP \$70 a year)중 하나였다. 그때 나는 기독교 학생 동아리 일원으로 천안 돼지분양사업에 참여 하면서 농촌개발사업의 꿈을 어렵게 갖게 되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캐나다 선교사이며 병리학 스승인 스코필드 박사로 부터 선진적 병리학은 물론 기독교적 박애정신도 배웠다. 그 과정에서 겨자씨같이 아주 작았지만 농촌개발사업의 꿈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한참후인 2006년 우리부부는 미국 선교단체인 하이퍼 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의 과테말라 "농촌 개발 사업" 현지 답사팀에 일원으로 뽑혀 2주간의 단기선교에 참여 하였다. 참석자들은 우리 부부 이외는 모두가 15명의 백인들이었다. 과테말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난한 6개 농촌지역을 순회 하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방지역이었다. 교방 지역은 국제 비행장이 있는과테말라시에서도 자동차로 북쪽으로 5시간 이상 걸리는 시골이다. 교방 지역



33년 다니던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직장을 사임하고 과테말라로 떠나 대학을 방문 교수들앞에서 세미나를 열고 초빙교수로 임명받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2007년 과테말라로 떠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최소 10년간은 과테말라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사업에 도구로 임할 것을 기도 하였다. 그런데 벌써 13년이 흘렀다.

■제2의 인생은 마야 원주민 농촌개발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그간 우리부부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직업적 전문인과 복음적 전문인으로 키워 주시고 또한 미국 공무원 은퇴연금으로 자비량 능력도 키워 주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연령 제한도 없는 안정된 공무원직을 사임케 하시고 아메리칸드림을 넘어 킹덤드림으로 인생을 180도 전환(Transforming)시켜 주셨다. 후반기 제2의 인생을 부부가 함께 가난한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농촌개발에 사역하게 하셨다.

양복을 주문할 때도 기성복과 맞춤형등 두가지로 선택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부부를 과테말라 선교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맞춤형 "수의과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로 만들어 주시고 보내셨다. 대학생때 겨자씨 같이 작은 꿈이 자라서 제 3국인과 테말라 농촌을 도우게 하신 것이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 일단 심어지면 큰 나무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겨자씨를 과테말라에서 뿌리며 나누어 주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아메리칸 드림은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바로 전문인 선교 훈련 과정임을 깨달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자가 전문인 선교사로 제3국 선교지에서 사역 할때 여지껏 살아온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인생 후반기의 과테말라 선교 13년은 일생의 황금기 지난 13년의 과테말라 선교 기간은 우리 부부 일생의 가장 황금기인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부름 받은 선교 사역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이상적인 협력자(Partnership) 관계로서 상승작용(Symbiosis)을 일으켜 사역의 능력이 1+1 =3이 되는것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부부의 과테말라 선교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일생 동안 배운 학문, 기술, 그리고 직장경험, 교회경험, 사회경험, 은퇴금등 모든것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그간의 배운 학문과 기술과 경험을 다 버리게 되지만 우리부부의 산칼로스 국립대를 거점으로 하는 총체적 선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간의 직업적 전문성과 사역적 전문성과 모든 경험들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 하나의 몸체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캐나다 민초 해외문학상 대상 /



김수영 (사대 57)

어머니의 굽은 등

낙타 등처럼 흰

엄마의 등에 업히면

공주가 되었다

공주를 실은 낙타가 걸어 가면

신호등이 켜졌다

나의 무게로

힘이 빠져 갔지만

내가 업히는 날에는 엄마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았다

나는 두 발로 회초리처럼 등을 차며

더 높이 날자고 어리광을 부렸다

어머니는 말없이 세상을 떠나시던 날

신기하게도 굽은 허리를 쭉 펴시며

그제야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셨다

/ 윤동주미주문학상 대상 /



조(감)옥동 (사대 58)

서 시

광복의 함성, 그날 밤 하늘

큰 별 하나

은하수 건너 빛납니다.

식민지 시대

27년 짧은 생애, 못다 부른 님의 노래

민족의 「서시」 되어 사랑되어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돌아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 들여다보았던 그 우물

달이 밝고 구름이 하늘이 파아란 바람이 그대로 흐르지만

한 사나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영원한 젊은 시인의 초상

청순한 청년의 얼굴,

그의 따뜻한 눈빛

남의 땅 북간도의 겨울은 동토의 땅

사라져가는 모국의 언어로 아름다운 동시를 쓰던 소년

식민지에서 더 아름다운 언어를 직조한 무명시인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하며

바람에 스치우는 별을 바라보던 눈동자

흑백사진 속 고독과 슬픔, 노스탈지어

밤하늘 당신의 별을 찾는 사람들

만주에서, 한국에서, 일본 열도에서, 미국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침묵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청년

시가 너무 쉽게 씌어져 괴로웠던 청년,

그의 언어가 성서가 되어 읽히고 있습니다.

▲서울대 사대 졸업 ▲현재 미주문인협회 이사 ▲현재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 이사 ▲현재 미주시인협회 회원 ▲현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원 ▲미주문학 수필 등단(2009) ▲한국산문 신인상 수상(2010) ▲한국창조문학신문 수필 당선(2010) ▲미주크리스천문학 시 부문 신인상 수상(2012) ▲서울문학산문 수필 부문 가작 수상(2013) ▲제7회 경희해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수상(2014)

▲서울대 사대 졸업 ▲미주리주 워싱턴대 수학 ▲1997년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입상 ▲1998년 「현대시조」등단 ▲2006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신인상 ▲2001년 「한국수필」신인상 ▲2018-2019년 민족시인선양회이사장 ▲재미시협 회장역임, 미주한국문협, 미주수필문학가협, 고원기념사업회 이사 ▲제1회 해외동포문학상 수상 ▲「현대시조」좋은 작품상 ▲한국평론가협회 해외문학상 해외꽃시인상 (2018년)



이회백 (의대 55)

/ 숨겨진 역사 이야기(하) /

미국 판문점, APPOMATTOX

<지난회에 이어서>

Sherman 은 전후 전혀 정치에 관여치 않고 끝까지 군인으로 남아있다가 은퇴했다. 은퇴후 그는 Johnston 과 자주 만났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Sherman 이 1891년 2월 14일에 71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죽었다. 그의 장례식날은 비가 내리고 몹시 추웠다. 모자를 벗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Johnston 장군의 건강을 염려한 주위사람들이 “장군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모자를 쓰시지요” 하자 “오늘 나 대신 그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라면 그도 모자를 벗었을것ियो.” 하고 듣지 않았다. 그날 든 감기로 인해 폐렴이 되면서 35일후에 그도 그의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1865년 4월 14일

이날은 Good Friday, Fort Sumter 에선 국기계양식이 거행되고 대통령 명령으로 전국에서 축포가 터진 기쁜 날이었다. 4년전 이날에 내렸든 바로 그 국기가 그때 그 국기를 내렸든 Major Robert Anderson에 의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계양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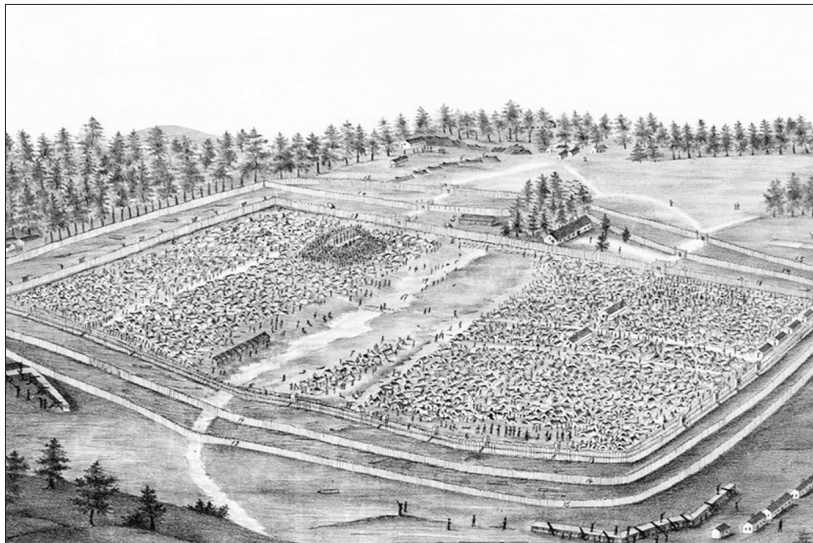
그러나 가장 기뻐던 이날은 그날 저녁에 가장 슬픈날이 되었다. 링컨 대통령이 Ford 극장에서 “Our American Cousin” 이라는 희극을 관람도중 John Wilkes Booth가 뒤에서 쏜 총에 의해 쓰러졌다. 총탄은 목을 뚫고 바른쪽 눈에 박혀 회복불가능이란 의사의 진단으로 아무손도 못쓰고 다음날 아침 56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는 끝났다. 제 2차 취임식을 가진지 채 43일도 안된 날이었다. 부통령인 Andrew Johnson도 다른 암살범에 의해 살해하는걸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암살범이 겁을 먹은덕에 살해를 면했고 국무장관이던 William Seward는 그의 아들과 함께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으나 살아났다.

William Seward는 링컨을 이어 대통령이된 Andrew Johnson의 국무장관으로 유임하면서 2년후 (1867년 3월 30일) Alaska 를 러시아로부터 7백 20만불 (acre당 2전)을 주고 사는데 주역을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비싸게 산 바보, Seward's folly, Seward's Icebox라고 놀림을 받은 사람이다.

1865년 4월 26일

암살범 John Wilkes Booth가 수색대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는 백인우월주의

의 신봉자로서 흑인을 노예제도에서 해방한 링컨은 결코 용서 할수 없었다. Lee가 항복한 후에도 그는 자기가 링컨을 제거하면 아직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군이 꺾기,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을 죽인 열흘후에 Johnston의 군대도 항복함으로써 그의 꿈은 살아졌다. 그는 “Useless, Useless” 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



▲앤더슨빌의 포로 수용소

▶교수형에 처해진 Henry Wirz

1865년 4월 21일~5월 3일

Abraham Lincoln 의 영구열차는 그가 4년전 Springfield 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던 길과 반대로 천천히 움직였다. Philadelphia에서는 Independence Hall에 영구가 안치되었다. 이 곳은 4년전에 암살 당할것을 예상이나 한듯 “..... But if this country cannot be saved without giving up that principle, I was about to say I would rather be assassinated on this spot than surrender it.” 라고 말한 바로 그 장소에. 1,654마일을 열이틀에 걸쳐 Springfield에 도착했다. “A House divided in itself cannot stand” 라고 1858년 6월 16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때 연설한 바로 그곳에 돌아왔다. 자신은 쓰러졌으나 집은 바로 세우고 돌아왔다. 아홉살때 죽은 링컨의 어머니를 대신해 링컨을 링컨으로 키운 Sarah는 링컨이 워싱턴을 향해 떠날때 가졌던 예감 (다시는 살아있는 그를 못보리라는)이 현실로 나타나자 흐느껴 울었다.

1865년 11월 10일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장 Henry Wirz가 인류에게 저지른 잔학행위의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Camp Sumter 로 불렸든 이 악명높은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북군포로들의 수는 후에 미국 적십자 창시자가 되고 남북전쟁터의 천사로 불린 Clara Barton 의 조사결과 1만 2천 912명으로 집계됐다. Henry Wirz 는 교수대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뿐” 이



라고 항변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Atlanta 에서 Savannah로 진격하는 도중에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를 지나다가 병들어 신음하고, 입은 상처에 구데기가 끓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 산송장이 된 전우들을 본 Sherman 군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1913년 6월1일~3일

50년전, 1863년 6월 1일과 3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 양쪽 합해 4만 6천명의 사망자를 낸 Gettysburg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Pennsylvania 주 Gettysburg에 모여 사흘을 지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부는 회색, 북부는 푸른 전투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군모를 쓰고 나와 싸웠던 전지를 가리키며 옛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과거는 항상 즐거운 법. 팔을 잃고 다리를 찢린 그들도 남의 일인듯 웃으며 이야기 했다. Cemetery Hill을 향해 남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돌진(?)했다. 위에 있는 돌담에서 이를 지켜보던 북부군은 감정이 솟구쳐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 남군을 향해 구르듯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서로 잔 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1914년 2월 24일

Gettysburg의 영웅, 그리고 Appomattox에서 General Lee 의 Northern Virginia Troop의 정식 항복식 사열을 받았던 General Chamberlain 이 죽었다. 그는 원래 Maine 주에 있는 Bowdoin 대학의 교수였고 군대훈련을 받은 바가 없는 지원병이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을 빼놓고는 전과목을 가르쳤으며 영어외에 9개 국어(히랍어, 스페인어, 불란서어, 독일어, 라틴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고 Syriac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탁월한 교수였다. 전후 그는 다시 Maine 에 돌아가 4년간 주지사로 지난후엔 다시 그의 모교 Bowdoin College에서 1871년부터 1883년 까지 총장으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임, 1914년 2월 24일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수학외에는 전과목을 강의했다고 전한다. 그의 죽음은 Civil War 때 받은 상처때문이라고 판정되어 그는 미 남북전쟁때 전사한 최후의 군인으로 기록 되었다. 그의 죽은 날이 진짜 남북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1938년 6월1일~3일

Gettysburg 전투 75주년 기념식에 당시 싸웠든 남북 군인이 다시 모였다. 90살이 다 넘었고 100을 바라보는 노인들이 Cemetery Hill 돌담을 사이에 두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는 크게 웃으며 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붉게 넘어가는 해를 뒤로 하고 헤어졌다.



손명세 (공대 60)

/ 문화읽기(상) /

뒤상, 한 편의 시

영국에서 황금 변기를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토픽란에 올랐다. 잃어버린 황금 변기는 이탈리아 조각가 마우리치오 카텔란 Maurizio Cattelan의 작품<America, 2016>이다. 이 황금 변기는 18K 금 227 파운드로, 금 시세로만 해서 \$4M일 것이라고 하고, 작품 가치로는 \$6M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황금 변기는 2016년부터 1년 동안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에 전시된 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태어난 옥스퍼드셔주(州) 블레넘궁에서 9월 12일에 전시를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전시를 시작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에 도난당했다. 이 황금 변기가 구겐하임 미술관에 설치되어 있을 때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전시되고 있던 5층 화장실에는 전시 중에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며 변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변기가 황금으로 만들어 졌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졌던, 부자가 앓던 가난한 사람이 앓던 간에, 변기 사용 시 내용물은 평등하게 변이라는 분비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변을 받아서 공공연히 금값으로 돈을 받고 판 예술가도 있다. 이탈리아 ‘아방가르드 예술가’ 피에로 만조니(Piero Manzoni) (1933년~1963년)가 그런 인물이다. 그는 1961년에 ‘아티스트의 똥’(Artist’s Shit)이라는 레벨을 붙여 자신의 대변을 90개의 캔에 넣고 ‘정량 30g, 신선하게 보존됨, 1961년 5월 제작’이라는 내용 설명도 붙여서 팔았다. 처음에는 당시 금 시세로 30g에 해당하는 \$37에 팔렸는데 2016년 밀라노 경매에서는 \$37만 달러 이상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예술품이라면 무조건 돈을 주고 사들이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예술가가 만든 것이 여기 있다고 만조니는 그의 작품을 제공했던 것이다.

충격과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에 ‘황금 변기’도 ‘아티스트의 똥’도 만만치 않지만 문화사적인 대 전기를 가져다준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1887~1968)의 <샘 Fountain>이라는 작품에 비하면 사소한 변주에 불과하다. 작품 <샘>은 당시 뉴욕 철물점에서 구입한 대량 생산된 자기 화장실 소변기에 ‘R. Mutt 1917’이라고 가명으로 사인하고 제목을 붙인 작품이다.

원래, 뒤상은 프랑스의 혁신적인 미술 양식들을 섭렵하며 파리의 입체파 그룹과 교류하면서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었던 젊은 작가였다. 뒤상은 1912년에, 후에 역사적인 작품이 된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NO2), 1912>을 전위적인 독립인전, 파리 ‘살롱 드 앙데팡당(Salon des Indépendants)’에 출품했다가 철수해 버리는데, 심

사위원들 가운데 있던 입체주의자들은 입체주의적이지만 시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미래파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불쾌감을 느끼고 수정을 요청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다음해 미국 최초의 국제 현대 미술전 아모리 쇼 (Amory Show)에 전시되



작품 <황금변기>



작품 <아티스트의 똥>

프랑스 작가 뒤상, 자신의 화장실 변기를 작품으로 내놔 대량생산된 제품을 ‘예술작품’으로 내놓은 파격적 시도 고정관념 탈피, 기존 예술의 개념을 전복시킨 사고 전환

어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상은 전쟁 외종의 파리를 떠나 1915년 아주 미국으로 이주해 버린다.

뒤상은 파리에서의 사건 이후에 그림을 더는 그리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캔버스에 그리는 전통적인 예술은 다만 망막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고 이제 ‘예술은 망막적인 것을 넘어 사유로 넘어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사물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작품보다 작품에 대한 구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뒤상의 나이 25세 때이다. 그후 <샘, 2017>이라는 작품으로 이런 생각이 구체화된다.

미국에 이주한 후 뒤상은 뉴욕에 ‘앙데팡당’의 원래 정신에 맞는 독립예술가협회 창립

을 위해서 기획위원이 되어서 돕는다. 고식적이지 않고 작품을 폭 넓게 수용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독립예술가협회는 1917년 작품전에 전시료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해 준다고 공고를 냈다. 뒤상은 그런 모토가 실현되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화장실 소변기에 ‘R. Mutt 1917’이라고 가명으로 사인하고 <Fountain>이라고 제목을 붙여 출품하였다. 소변기로 쓰려면 벽면에 가 있을 면을 바닥에 놓이게 해서 조각품 전시하는 방식으로 전



뒤상의 작품 <샘>

실실 좌대에 올려 놓았다. 뒤상은 이 작품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술품을 창안했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기획위원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것은 전시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어처구니없다고 느낀 것이다. 기발하다고, 좋다고 한 이는 뒤상을 알아보고 이후에도 끝까지 후원한 알렌스버그 뿐이었다. 전위성을 가져야할 독립인전에서 또 한번의 쓰라린 경험을 한 뒤상은 작품을 철거해 버리고 기획위원회에서 탈퇴한다. 아렌스버그는 이 작품을 샀고 그에 의해서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같은 해에 스위스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이 ‘다다’를 창립할 때 이 작품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기도 해서 일약 역사적인 작품이 된다.

처음에 출품했던 작품 <샘>은 전시가 거

부되면서 치워졌다가 분실되었고 1964년에 복제된 것이 런던 테이트 뮤지엄에 상시 전시되고 다른 복제품들은 세계 각국 미술관에 순회 전시되고 있다. <샘>을 처음 본 독립예술가협회 운영위원 사람들처럼 미술품이 아니라고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20세기 현대미술에 그가 끼친 영향력이란 혁명적이고 폭발적이었던 것이 분명해졌다. 뒤상이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상 용품을 들어온 곳은 근대 이래로 성

소처럼 여겨지기까지 한 미술관이다. 이래로 예술이란 하늘에서부터 타고난 재주로 창작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작품의 초월성의 관념이 굳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모아 놓은 미술관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 소리도 낮추고, 발걸음 소리도 조심한다. 미술관은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곳에 일상 용품이 작품이라고 전시되면 격이 달라져서 이 일상 용품은 일약 초월성의 지위로 상승하고, 성·속은 평균화 돼 버린다. 뒤상은 속되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변기를 성화된 미술관에 들여와 그런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대량생산 되어서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변기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버리면서, 오랫동안 작품이란 ‘유일한 것’이라고 여겼던 원본성의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원본과 복제품의 장벽이 무너지고, 구분도 무의미해진다. 이런 영향을 받은 웬디 워홀 같은 작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실크스크린으로 찍어 내기도 하고, 여러 뮤지엄에 전시되고 있는 그의 작품 <브릴로 박스 Brillo Box, 1964>도 처음에 제작했던 것은 분실되었고 모두 복제품들이다.

<샘>이란, 변기라는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사유를 유도하고 그림으로써 전에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예술품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전환은 그가 일찍이 주장했던 대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예술 작품이 가지는 개념을 전복시킴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다. 일대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난 것이다. 뒤상은 <샘>과 같이 예술가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일상 용품을 통해서 제시한 이러한 새로운 예술 방식을 ‘레디메이드 readymade’라고 이름 붙였다.

<다음회에 계속>



천양곡(의대 63)

/ 의학 풀어보기 <상> /

잠(Sleep)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11 월 초순이다. 잠 때문에 정신과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오는 시기다. 거기에 섬머타임 까지 겹치면 심신이 잘 적응을 못하는지 잠문제 뿐 아니라 불안증,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우울증 증세는 안 좋아졌는데도 자살과 자살기도, 자살유혹은 다른 계절보다 낮다. 왜 그런지 확실한 이유는 모른다.

모든 생물들은 잠을 잔다. 미생물, 곤충 까지도 잔다. 잠은 이렇게 흔하지만 아직도 신비속에 묻혀 있다. 잠을 잘때는 지위도 재물도 의식 속에서 빠져 나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 단지 자고있는 공간 만을 가질 뿐이다. 잠은 꼭 자야 된다.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면역성을 올려주고, 화학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린이 경우 성장호르몬 분비로 신체발달을 촉진하는 등 심신을 수리하고 충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잠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휴식이 아니고 뇌로 부터 받은 명령에 따르는 강제성이 있는 휴식이다.

그럼 얼마나 자면 될까? 30년 이상동안 자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고, 단지 10일 정도만 버텼다는 사람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보통 타고난 유전자나 환경 요인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7-8시간이 정상이다. 그런데 어떤이는 단지 2시간이나 4시간이면 족하고 어떤이는 10시간 정도는 자야 하는 예외도 있다. 문헌을 보면 미켈란젤로나 나폴레옹은 4시간 밖에 자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얼마만큼 어떻게 잤는가를 인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옆에서 보면 잘 자는데 본인인 설쳤다고 하고, 업치락 뒷치락 하는것 같은데 늘어지게 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내과의사 진료실에 들르면 제일 먼저 간호원이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체크한다. 최근에는 이 네가지 외에 반드시 통증의 유무를 물어보게 되어 있다. 정신과 환자 경우에는 잠에 대한 질문을 빼놓지 않는다. 환자의 통증을 없애 주거나 잠의 불편을 덜어주는게 의사 소명의 하나다. 제 아무리 박사요, 하바드 교수라 할지라도 통증이나 잠을 잘 치료하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의사로 여긴다.

어느 정신질환을 막론하고 잠에 대한 불평은 빠지지 않는다. 한약방의 감초 마냥 모든 정신질환에 따라 다닌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살아가면서 잠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다. 잠들기가 힘들고 밤중에 자꾸 깨고 필요없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잠이 부족하면 불면증, 반대로 너무 많이 자면 과다수면, 시도 때도 없이 낮에 졸음이 폭포수 같이 오면 주간 졸림증, 하루 일정에 맞지 않

게 잠이 올 때는 못자고, 깨어있을 때 자야하는 일주기 리듬 불면증, 호흡기 조직의 이상으로 수면 중 호흡이 빈번히 정지하여 아침에 일어나도 골이 땡하여 잠을 못잔 느낌이면 수면 무호흡증, 자면서 주위사람들을 자꾸 발로 차는 주기성 사지운동 불면증, 기타 정신증상, 신체질환과 약물복용 때문에 잠에 지장이 오는 정신신체 불면증 등이다. 이런 불면이 한달 이상 지속하여 낮의 활동에 지장을 주면 수면장애라 부른다. 아직도 잠에 대한 신비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아 치료

서 잠에 대한 전문적 내용을 알아보자.

잠은 잠의 단계와 잠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잠의 단계는 눈알을 빨리 굴리며 자는 램수면(REM)과 그렇지 않는 비램수면(NREM)으로 구성되며 이 두 수면은 각각 다른 뇌파 형태, 생리 현상, 꿈의 유무, 행동양상 등의 차이를 보인다. 비램수면은 다시 4개의 stage로 나누는데 stage 1은 가장 얇게 잠든 상태고 stage4는 가장 깊게 든 잠, 23은 그 중간이다. stage 1상태에서 깨우면



수면의 질, 정신과 육체적 건강에 직결

수면 단계 비율 정상적일때 깊은 수면 가능

불면증 4주이상 지속시 조기진단, 치료 요구

도 어렵다. 정신과 의사 또한 환자들의 잠을 잘 자게 해 주어야 용한 의사란 말을 들어 먹고 살기가 쉽다.

잠은 정상적으로 자연히 일어나는 신체활동의 하나다. 잠 또한 개체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적 선택을 거쳐 왔다는 다윈의 진화설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조상인 원시인들은 잠과 꿈, 죽음을 하나로 보았다. 잠의 분신이라고 할 꿈 덕을 본 대표적 인물이 프로이드 선생과 바이블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다. 프로이드는 자신이 발명한 비 과학적인 정신분석학 이론을 증명하려고 꿈의 해석을 이용했고, 유대 노예였던 요셉은 신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해몽을 하여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매일 경험하는 잠은 그림자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 다녀 좋으나 싫으나 같이 가야한다. 인생살이 중 재 충전을 해주는 좋은 친구지만 어느때는 잠 때문에 너무 고생이 심해 그저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간추려

자신이 잠을 잔게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고, stage 2에 깨우면 잠깐 잠들었다고 실토하며, 4에 들어가면 깨기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 램수면 중에는 안구가 빨리 움직이고 혈압, 맥박이 올라가고 꿈을 꾸며, 남성의 경우 음경이 팽창한다.

램수면은 보통 90분- 100분 간격으로 나타나므로 평균 8시간 잔다고 치면 하루 저녁 대략 5번 정도로 초저녁에는 짧으나 깨어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길어진다. 비램수면은 반대로 초저녁엔 길고 새벽엔 짧다. 신생아는 50-70%가 램수면이며 노인의 경우 비램수면의 stage 3,4가 줄어 들어 깊은 잠이 힘들어진다. 램수면은 신체적으로 해이된 상태지만 심리적 활동은 왕성하다. 그래서 램수면 중에 깨우면 매우 예민하여 신경질적이고 다음 날 집중력, 기억력 저하를 호소한다. 불안,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램수면의 장애를 보인다. 비램수면 중에 깨우면 몸이 나른하고 피로하고 동작이 느리다고 불평한다. 수면 단계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수면 주기도 조화를 유지할 때 우리는 정

상적인 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인간의 수면은 두개의 주요 생체기전, 즉 일주기 리듬과 생체내의 기능들을 유지하려는 항상성(Homeostasis)에 의해 좌우된다. 햇빛노출, 체온, 멜라토닌 분비, 혈액순환, 운동,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출생시 유전에 각인되어 있는 수면-각성 패턴(아침형과 저녁형 사람) 등이 앞의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얹혀 있어 잠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좋으면, 자기 전 가벼운 운동을 하면, 아침에 햇빛을 많이 쏘이면, 걱정을 덜하면 잠을 잘 잔다.

또한 수면과 각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관관계로 이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해부학, 신경 생화학, 호르몬, 일주기(하루)리듬 등 여러가지 신체기능이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한다. 해부학적으로 뇌간에서 대뇌피질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향망상체 활동계의 역할, 화학적으로 신경 전달물질인 도파민의 활성화, 호르몬으로는 멜라토닌 분비를 들 수 있고 일주기 기전으로는 생리활동의 조절자인 생체시계 활동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은 일주기 리듬과 항상성 사이에 균형이 잘 맞을 때 일어난다.

불면증의 종류도 여러가지다. 시험을 앞두거나,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할 일이 있거나, 법정 출두, 수술 받기 전에 받는 스트레스로 몇 밤을 설치면 일시적 불면, 스트레스 요인들이 사라졌는데도 2-3주 계속 잠을 잘 못자면 단기 불면증, 무슨 이유든 4주 이상 불면이 지속되면 만성 불면증이라 부른다. 만성 불면증의 거의 반 이상이 신경정신과 질환 때문에 생긴다. 원인적 분류로는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들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차성 수면장애와 무슨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이차성 수면 장애로 나눈다.

잠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쌓이면 깨어있는 시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요한다. 불면증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천식등의 신체질환과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에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잠에 대한 불평은 매우 주관적이며 단순하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피로, 늙음 때문이라 여겨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여러 형태의 수면장애로 인한 직 간접 경제적 손실은 미국에서 연간 15조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면장애의 진단과 치료는 다른 병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의사와 환자들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최용완 (공대 57)

/ 한민족의 얼(5) /

인류문명, 한반도의 농경생활에서 탄생했다

2008년 7월에 SCIENTIFIC AMERICAN DP 발표된 유전학의 인류혈연추적(TRACKING Y CHROMASOMES THROUGH TIME)에 의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류는 10만 년 전쯤에 해뜨는 동녘을 찾아 아프리카를 떠나갔다고 한다. 이때 지중해연안을 제외한 유럽은 빙하기의 얼음으로 덮혀 있었고 서남아세아는 격렬한 기후변화로 정착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 상태는 최근 일만 이천 년 전까지 지속되었다.

아프리카를 떠나서 동남아세아와 오스트랄리아에 도착하였을 때는 6만 년 전이며 아프리카와 기후가 유사하고 음식이 풍부한 동남아세아 지역은 인류유아기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다. 동남아세아의 기후와 자연조건은 인류의 인구증가에 적합한 보급자리였다. 동남아세아에서 씨족사회가 성장하면서 그때까지 짐승들처럼 소리내던 언어에서 사람의 언어형태가 나타났다. 유아기의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의 시작은 남방계 오스트로네시안과 북방계 오스트로아시아틱으로 나누어진다. 언어학자 조하나 니콜스는 세계 모든 언어의 근원이 동남아세아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류의 지능은 성장하여 활동력과 활동지역이 확대되면서 아동기로 성장하였다. 동남아세아를 떠난 많은 민족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하였지만 동남아세아에서 바닷길 따라 북쪽으로 이주한 민족은 5만년 전쯤에 동아시아에 이르렀다.

현대인류는 한반도에서 사계절의 겨울을 맞아 처음으로 자연에 도전하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젖에 의존하는 자연식물 채집생활에서 씨를 모아 심어서 길러먹는 농경생활로 진화하였다. 한반도의 농경생활은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며 숯불에 흙을 구어 질그릇을 만들어 음식을 보관하였다. 닭, 돼지, 오리, 개, 등을 집에서 기르고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수확하여 겨울 준비를 하는 농경생활이 발전하였다. 소를 길러 노동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음식을 생산하는 산업생활로 변화되었다. 말린 음식을 보관하고 발효음식을 개발하여 땅속 항아리에 보관하였다. 세월이 지나며 쌀과 비단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비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동남아세아에 전해지고 유럽에서 많이 소비되었기에 비단길(SILK ROAD)은 유라시아의 통로가 되었다.

1. 고인돌 마을

생신, 결혼, 제사, 등의 종교의식이 나타났다. 시신을 나무관이나 항아리에 보관하여 땅에 묻고 동그란 묘를 썼다. 마을에 지도자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편편한 큰 바

위를 끌어와서 덮었다. 덮개바위에 북두칠성을 새기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며 덮개바위 아래 받침바위를 세워서 탁자모양의 고인돌(支石墓, dolmen)이 세워져서 마을의 조상을 섬기는 신전이 되었다. 호남의 고창, 화순, 강화에서 시작된 고인돌 유적은 한반도 내부에 3만여 유적을 남기었고 한반도 주위에 1만여 유적을 남겼다. 바닷길 따라 인도지역에 전해지고 서남아세아와 유럽에 분포되어 4만여 유적을 남기었다. 런던 외곽에 세워진 스톤헨지는 2



영국의 스톤헨지



장군총

고인돌에서 발굴된 금속 칼과 장식물

천 500년 전에 세워진 고인돌 유적(사진 영국의 스톤헨지)이다. 금속도구로 다듬어 원형평면으로 세워졌다. 한반도의 종교에서 원형평면은 신의 영역이며 사방형평면은 사람의 영역으로 석굴암 평면은 전방후원 평면이다. 고창, 화순, 강화에서 시작된 한반도의 고인돌 문화는 지난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피라미드 진화

한반도에서 저수지를 파서 물을 모으고 판 흙으로 제단을 쌓아올려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둥근 흙무덤을 지는 기술은 요동반도에 이르러 바위산을 짓기 시작하였다. 해양생활에서 겨울을 이겨낸 내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만주지역의 유목민으로 성장하고 개, 말, 양, 염소, 등을 집에서 길렀다. 압록강과 요동반도의 요하지역에 이르러 농경과 유목생활이 융합하며 산업이 발달하고 국가적 사회조직이 발달하였다. 멀리서 바위를 끌어와서 고인돌을 세운 기술은 흙무덤이 돌무덤(적석총)으로 진화하고 바위 성벽

도 지었다. 돌무덤은 바위무덤(피라미드)을 짓는 문화로 만주 지린성 일대에 장군총(사진 장군총)을 비롯하여 수 천개의 피라미드와 서안시 주위에 수 천개의 유적을 남기었다. 요동반도에 홍산문화의 피라미드는 2,000년 후에 바닷길 따라 아프리카 나일강에 전해져서 돌연변이 이집트문화로 나타났다.

3. 금속문화

신석기 시대 농사짓기 시작한 고인돌마을은 봄, 여름, 가을에 음식을 장만하여 겨울

여 세워졌다.

4. 홍산 문화

홍산 문화(홍산 문화 紅山文化)는 중국 만리장성 북동부에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의 문화이다. (사진5. 홍산문화 지도) 옥기(玉器)는 한반도 강원도 고성군 패총에서 출토된 옥 귀걸이(7천 년 전)와 전남 여수 안도리(6천 년 전) 등에서 발견된 옥 장신구, 귀걸이와 유사점이 있어 고조선 등 한반도 초기 역사와 관련이 있다. 옥으로 조각된 룡(龍)의 모



5. 홍산문화 지도

한반도 정착 인류, 4계절 맞으며 농경생활 진화

한반도 고인돌 유적, 영국 스톤헨지로 발견

홍산문화 피라미드, 아프리카 이집트 문화로 발전

한민족문화, 사마리안·마야·아스텍 문화의 뿌리로

을 이겨낸 생존력을 얻었다. 처음으로 북위 44도를 지나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흙벽에 동굴 주택을 짓고 나무, 숲, 석탄 연료를 저장하여 겨울철을 넘겼다. 석탄이 흔한 이 지역에서 그릇을 구워 만들어 질그릇 만든 생활이 아세아 내륙과 동유럽까지 전해졌다. 질그릇 만드는 석탄불은 금속을 대량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하였다. 여러 가지 금속기술과 금속도구는 군사무기에 사용되어 강력한 국가체제가 성립하였다. (사진 고인돌에서 발굴된 금속 칼과 장식물) 손칼로 옥돌을 다듬어 옥석조각 문화가 시작되고 중미에 마야문화와 아스텍문화로 전해졌다. 쇠불이 연장으로 목조와 석조건물을 지으며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인류의 세계문명은 이곳 우리 선조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농사지으며 바퀴를 사용하는 습관은 거마(車馬: CHARIOT)를 생산하여 동아시아의 중원을 차지하려는 거마전쟁이 시작하였다. 진시황제가 중원을 차지할 무렵에 만주 훈족은 강철무기를 장비하고 기마군단을 이루어 지중해 지역을 침략하여 세계적 민족이동을 초래하고 로마국가를 다스려서 유럽의 로마제국은 우리의 선조 훈족에 의해

습이 처음 나타났다. 1908년 일본의 인류학자 도리이 류조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가 최근 중국의 고고학발굴과 연구로 확인되었다.

기원전 8,000년부터 시작한 신석기 시대 문화는 기원전 4700년~기원전 2900년 요하 상류 부근에 석기시대의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civilization)으로 인정되어 '요하문명'으로 명명하였다. 동쪽으로 고조선문화와 고구려문화로 이어지는 동안 남쪽으로 하나라, 상나라로 이어지며 중국역사와 동아시아 문화의 시발지역이 되었다.

중국의 중화민족은 세계혈연학 지도에서 1만년 전에 동남아세아에서 북방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양자강과 황하의 하구에 수만년 이전에 정착한 한민족과 융합하였다. 주나라 때부터 중원을 차지하고 만리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 밖의 문화를 동이흥노 문화로 외면해오다가 최근에 동북공정을 발표하고 한민족 문화를 포함하는 포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시작한 한민족의 문화는 사마리안 문화, 하나라와 상나라, 이집트 문화, 북남미대륙에 마야와 아스텍 문화로 이어지며 전세계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 사람, 사람들 /

“고맙다, 어린이들아!” 교직 70년, 큰 기쁨 가득

허병렬 (사대 42) 뉴욕한국학교 설립자·교사

“내가 미국에서 한국학교 교사로서 동포 자녀를 위해
한국문화교육을 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포 자녀가 미국에서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의 페스티벌로 ‘해외 한국문화교육의 어머니’ ‘영원한 일선교사’ 등 한국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허병렬 전 뉴욕한국학교 이사장이 자신의 삶과 비전에 대해 동창들과 나누고자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 평생을 한국교육에 앞장선 계기는?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1959년 국비장학생으로 테네시 내쉬빌에 있는 조지 피바디 사범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평생 사표로 삼은 김애마 이화여대 사범대학 초대학장의 권유로 1964년 또한번 유학을 왔다.

나를 유독 아껴주신 선생님께서는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대학에서 일하도록 하실 생각이었다. 그 당시 뉴욕의 뱅크스트리트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며 주말엔 뉴욕한인교회와 퀸즈한인교회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하면서 2세 자녀들을 위해 우리 글 우리 문화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위를 마칠 무렵, 학장께 소망을 담은 편지를 썼다. 만일 스승이 돌아오라면 군말없이 따를 생각이었다. 뜻밖에도 “한국에 와서 사범대학생을 가르치든, 미국에서 한인자녀들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것은 똑같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니 더더욱 찬성한다”고 제자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렇게 1973년 5월5일 어린이날에 브롱스 리버데일의 JFK 하이스쿨에 매주 토요일 문

을 여는 ‘뉴욕 한국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한국학교’로 발전했다. 그렇게 교직 50년을 뉴욕한국학교에서 내 인생을 보냈다.

1944년 경성사대 수석 졸업
교편 생활 중 유학 뉴욕 정착
1973년 최초 한국학교 설립
태권도, 서예 등 문화도 교육

- 뉴욕한국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직을 지내셨는데 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직접 교육에도 힘쓰신걸로 알고 있다.

▲처음 설립 당시에 교장직을 거절했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조건을 내걸었다. 만약 클래스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하고 교장직을 수락했다.

나는 3살에서부터 어른까지 어느 연령, 인종을 불문하고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시티 칼리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었다. 정원이 10명 이상으로 10명이



70년간 한국문화 교육에 힘써온 허병렬 선생님.

되지 않으면 클로즈를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8명이 지원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학장에게 가서 교실만 빌려달라고,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한학기를 8명을 위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건 나에게 크나큰 기쁨이었다.

- 한글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에도 중점을 두셨다는데...

▲한글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화로 뿌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역사는 학술이지만 문화는 생활이다. 한복입기, 김치 담그기, 송편빚기 등을 가르치며 한국을 몸으로 익히고 싶었다. 한국학교는 한글학교가 아니다. 한국문화학교이다. 그 테두리 안에서 한국학교가 자라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

- 미주한국학교협회(NAKS) 설립 계기는

▲1980년 뉴욕한국학교에서 미주동북부지역 한국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공개수업과 교사 연수회를 가졌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것이 '미주한국학교협회 NAKS(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나스 연례 모임에는 전 미주 1,000여개 한국학교에서 700~800명의 교사들이 모여 한국학 연구를 할만큼 엄청난 규모로 발전했다.

- 서울대 시절 이야기를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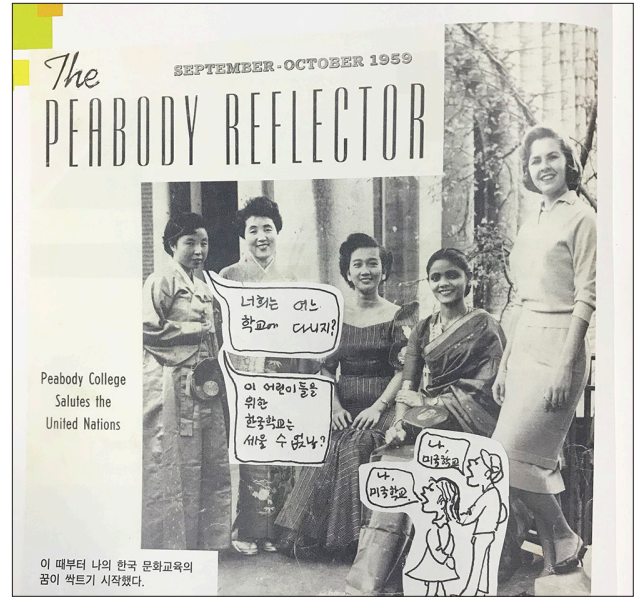
▲난 일제시대 졸업한 사람이다. 경성여자사범학교에 입학해서 1944년 졸업할 때 200명의 졸업생중 1등을 했다. 당시 경성사범엔 일본학생이 우리나라학생보다 세배나 많았지만 일본인한테 저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컸다. 8월15일에 해방이 되고 10월에



돌 무렵 한복을 입은 사진.



아버지가 직접 주문한 모자와 옷을 입은 어린시절 모습



'한국문화교육 50년' 책에 실린 피바디 대학 시절모습(맨 왼쪽)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교직을 맡았다. 한글책이 없어 책을 만들어서 가르쳤다. 삽화를 직접 다 그려 가르쳤다. 사실 서울대 미대에 붙어 등록금까지 냈는데 "미대 나오면 굶는다"며 반대한 아버지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미술로 파리 유학까지 꿈꿨다가 사대로 방향을 돌렸다.

- 일제시대 학창시절의 기억은

▲학교 다닐 당시 전부 일본말로 교육을 받았다. 학교에서 절대 한국말을 할수 없었다. 집에서만 한국말을 했다. 지금도 일본기와와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일본어를 잊지 않고 있다. 교육의 영향은 무서운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다른 것 같은데

▲ 난 쉽게 말해서 호사하며 자랐다.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다. 딸 둘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셨다. 진취적인 성격에 미국으로 보낼 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셨다. "하고싶은 것 해라. 여자라고 해서 못할 것 없다"며 남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

내 사진에는 모자쓰지 않은 사진이 없다. 아버지가 외국에서 직접 주문해서 사주신 것들이다. 요즘아이들에 비교해서도 뒤쳐질게 없을정도였다. 나의 자존감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 90이 넘으신 나이에도 열정이 넘치시는데

▲ 한국의 동년배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자신들은 60이 넘어 은퇴를 했는데 지난해 까지도 선생님이로 건재하게 활동 중이다. 친구들이 넌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일을 해라. 일거리를 받으려 하지말고 일

낙 오래 습관이 됐기 때문인 것 같다.

- 현재 한국문화가 미국땅에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명 한류, 한국문화가

는 경향이 아직 있는게 사실이다. 그건 한국 학교에서 모든 나라의 문화는 제각각 나름의 내용이 있을 뿐이지 수준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걸 가르쳐야 한다. 한국문화의 자긍심을 강조해야 한다.

- 서울대 동문들께 하고싶은 말은

▲ 서울대학은 일류대학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 큰 꿈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부하는 책 속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서울대학 졸업생이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야 할 것이다. 학교 점수 이 외의 것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어도 중요하지만 생활로 익히는 문화 교육 절실

2세대 한국문화 자긍심 길러야 세계인으로 한몫 한다

을 돈주고라도 찾아다녀라 그래요. 그게 일하는 행복이다. 지금은 시니어센터에 다니는데 센터의 한쪽 벽면은 내 차지다. 매니저에게 요청을 해 늘 뭔가 만들어 붙이면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다. 뉴욕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나 즐겁다. 지금도 매일 30블럭 이상을 걷는데 투자한다. 나이 먹어서 전원생활이 좋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안한다. 나이먹을수록 도심에서 살아야 한다. 사람들과 부대끼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 쇼윈도에서 구경할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걷는게 너무너무 즐겁다.

교직에 몸 담을때도 학기중에는 금요일 밤에 잠을 잔 적이 없다. 토요일 수업 준비를 하고 학교문을 여는 것부터 모든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잠을 청해도 오지 않는다. 그래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위

지 알려진 것을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생활로 한국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미국에서는 한국문화를 수준을 조금 낮게 보



◀ 어린 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시절의 허병렬 교사.



■ 허병렬 동문 PROFILE

1926년 세 딸중 맏이로 태어나 1945년 서울사대부국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무려 70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다 2018년 은퇴했다.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교사로 활동, 뉴욕 한인교회 한글학교 교사, 컬럼비아대학에서 한국어과 강사, CUNY, Queens 대학 한국어과 강사를 거쳐 뉴욕 한국학교 교장, 재미한인학교협의회(NAKS) 전국회장·전국 이사장을 맡았으며 재미한인학교협의회 발행 '한인교육연구' 20권의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서 교과서 편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지금까지 16권 이상의 한국어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편집에 참여했다. 이같은 공로로 1984년 소수민족 우수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1985년 제29회 소파상, 1989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 2004년 KBS 해외동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재외동포 영웅 찾기 프로젝트' '한국학교의 어머니-허병렬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해 최근 유튜브(<https://youtu.be/6q7chwD-BXDo>)에 올리기도 했다.

카네기 축하 음악회, 리더십 세미나... 변화와 도전, 그리고 화합의 2019년

2019 회고 좌담회

더이상 이 시대는 '회갑(回甲)'이란 단어를 의미있게 여기지 않는다. 환갑(還甲)은 만 60세의 생일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환갑 혹은 회갑은 60년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한 해가 지나는 속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진 것에 기인한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는 예전의 그 것과 의미는 많이 달라졌으나 우리는 빨라진 속도에 잃어버리는 것 혹은 무심코 지나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잃게 되지 않는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9년을 회고(回顧)하고 회자(回刺)하는 것이 2020년이라는 공상과 학 소설에 나올 법한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매년 송년회 즈음으로 치부될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대 미주총동창회를 위한 모임으로 2019년도 좌담회를 마련했다. 형식을 벗어나 새로움에 대한 기대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는 동문들을 기대해 본다.

<편집자 주>

■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편집회의에 참여한 소회를 전해달라.

- 송웅길 (편집위원)

회장님과의 인연으로 처음 편집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와이프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다. 나와 보니 회의에 임하는 임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서울대 동문회는 임원과 편집위원들이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동창회보 하나를 만들고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서울대 다운 동창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되었다.

- 한경진 (재무국장)

제 나이또래들 처럼 나 또한 동창회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맡게 되 부담스러웠지만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책임감과 애정이 가게 되었다. 또, 젊은세대로서 동창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11월23일 서울대동창회 사무실에서 임원 및 편집위원들이 모여 한해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열었다.

일이 무엇인지 찾게되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다. 편집회의에 오면서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 바도 많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 최형무 (법률고문)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동창회 임원과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회의 참여 덕분에 동창회의가 군더더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서울대 동창다운 집중력 있고 건강한 회의 운영이 눈에 띈다.

■ 올 한해 있었던 가장 인상깊었던 동창회 프로그램은?

- 유은주 (간사)

카네기홀 공연이 가장 인상깊었다. 서울대 동문들의 화려한 공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또한 평의원회의 때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 문현호 (총무국장)

신문의 큰 발전이 어떤 프로그램보다 눈에 띄었던 것 같다. 교회 동문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편집에 힘쓰시는 편집위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송웅길 (편집위원)

동창회의 가장 의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서울대 홈커밍데이에서 개최한 리더십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훌륭한 행사가 한번으로 끝나는데 아니라 내년에도 서울대 이름으로 인류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등 큰 주제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 개최를 열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신응남 (동창회장/발행인)

송 편집위원의 말씀에 한마디 붙이자면 그동안 역대회장들이 '브레인 네트워크' 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이 행사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청중들 타겟을 젊은 학생들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많이 아쉬웠다. 그러던 와중에 마침 홈커밍 데이를 맞아 우리 후배들을 위해 해 줄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브레인 네트워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재미과학자 협회의 이강원 교수께 연락이 닿아 강사분들을 섭외했다. 서울대 학생처장의 요청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콘밸리 창업자 등의 강연이었는데 이에 딱 맞는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한국으로 가게되었다. 현지에서 본 세미나는 역동 그 자체였다. 학생들의 질문 퀄리티가 상상을 초월했다. 후배들의 수준을 몸소 느낄수 있는 자리였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강연은 영어로 진행이 되었고 실질적인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다 이내막한 시간이었다.

■ 동창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 연영재 (업무국장)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는 강하지만 단합하지 못하는게 아쉽다. 동문회 임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수 밖에 없다. 회장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세분화된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웅길 (편집위원)

소설 '탈무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앉혀놓고 매주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다른 의견을 말해라" 라고 한다. 나는 그것이 유태인이 노벨상을 섭렵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창조적인 머리를 길러야된다. 우리는 반대하면 적대적인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건 이북의 독재자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타기위해선 후배, 선배들에게 다른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편집회의에서도 다른의견이 오가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유시영 (섭외/홍보국장)

동창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이 눈에 띈다. 3년전에 있는 글이 그대로 실려있다. 매달 신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웹사이트로 게재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셀렉션 기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부분이다.

- 신응남 (동창회장/발행인)

회장 회기가 넘어오면서 웹사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도메인 리커버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내년부터는 담당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동창회가 실질적으로 발전하기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 한경진 (재무국장)

이번 임원회가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선 젊은층의 참여가 필수 인것 같다. 리더십 세미나의 성공은 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해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서울대 많은 유학생들과 이미 이곳에 자리잡은 단과대별 교수님들을 하나로 묶을수 있는 맵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 과별로 구심점을 만들어 주면 젊은층이 한데 모일수 있는 기회

가 되지 않을까. 젊은층이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미주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중심이 되어 제공해 주길 바란다.

- 유시영 (섭외/홍보국장)

한경진 위원 말씀에 덧붙이자면 워싱턴 DC에서는 성공적인 젊은 동창들의 흡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를 위해선 동창회의 노력이 필수였다.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선배들의 봉사가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장학금 등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게 현실적인 대안인 듯하다.

- 최형무 (법률고문)

서울대 동문들은 지적인 성취욕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열린 리더십 컨퍼런스가 좋은 예 인것 같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동창회 활동으로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 신응남 (동창회장/발행인)

워싱턴주 동창회가 회장이 주축이되어 매달 세미나를 개최한다. 워싱턴 DC의 경우도 특히 00학번 모임 등 젊은층의 활동이 도드라진다. 정기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모임이 젊은층들이 적극적 활동으로 이어지게 아난가 하는 생각이다. 미주동창회는 이들을 벤치마킹으로 지부들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그들의 활동을 알리고 지원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연영재 (업무국장)

아직은 조직력이 많이 미흡하지만 회보가 획기적으로 변화된데 고무적인 성과라 생각한다. 읽고 싶은 신문으로의 변화가 눈에 띄는것 같다. 편집위원들이 미주동창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더 내고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동창회보와 동문들에 바라는 점은

- 문현호 (총무국장)

지금까지 편집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장님께

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1. 새회원 발굴 2. 각지부와의 소통 3. 평의원회의 4. 신문의 발전 이었는데 이것들을 키포인트로, 지금처럼만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회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주동창회가 사무실을 꾸리고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동문들도 믿고 잘 협조를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 박재은(미대 63)

난 서울대 공지가 강하다. 나의 본질은 서울대 정신이다. 미국의 어떠한 대학에서 수학을 해도 서울대 학생들 만한 실력을 가진 분들이 없다고 자부한다. 동창회보에 서울대 각분야 법률, 과학 등의 전문적 칼럼이 더욱 많이 실리길 기대한다.

- 송웅길 (편집위원)

읽기쉽고 재밌는 글도 물론 좋지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한미관계, 미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우리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루는 글들을 기대한

다. 동창회 신문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 이희만 (편집고문)

지난 10월 중순 모교의 홈커밍 데이에서 만난 한 동문은 미주동창회 신문이 뉴욕 타임즈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고 극찬을 하셨다. 동창회 회보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긍지 그리고 높은 기대감을 한꺼번에 느꼈다. 이 회보가 전문성과 시사성을 더하며, 동문들이 가야할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광장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문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참 /석 /인

■ 임원 및 편집위원 : 송웅길/ 박재은/ 한경진/ 최형무/ 문현호/ 유은주/ 유시영/ 박정원/ 연영재/ 이지희 ■ 편집고문 : 이희만 ■ 발행인 : 신응남 ■ 정라: 박정원

/ 미술 이야기 /



박재은 (미대 63)

작품삼매

<三 昧>

동향인 나의 스튜디오 창을 통해 밀려들어오는 햇살, 스튜디오 바닥에 떨어진 늦은 아침햇살에 반짝이며 와있는 영원 끝 한 토막, 나에게 주어진 몽탕 옹통진 값진 하루. 스튜디오 창밖 Union Avenue는 빈번한 차량, 트럭 들의 왕래, 가로수와 건물들의 질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진 보도 위로 오가는 행인들, 바깥세상은 온통 생생하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

늦은 아침 classic 음악 속에 점심 겸 아침식사와 함께 coffee를 마시며 좋은 글을 군것질 하듯 읽으며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부의 하루, 예술가의 하루, 장사꾼의 하루, 회계사의 하루, 변호사의 하루, 의사의 하루. 바깥인간생존의 세상에는 끊임없는, 매웁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한 독특한 인연의 바람이 지난다. 몇 주전, TV에서 보았던, 몹시도 아름다운 사랑의 aria를 불렀던 Tenor 가수의 모습이 아직도 애뜻한 연정처럼 찡 하게 나의 가슴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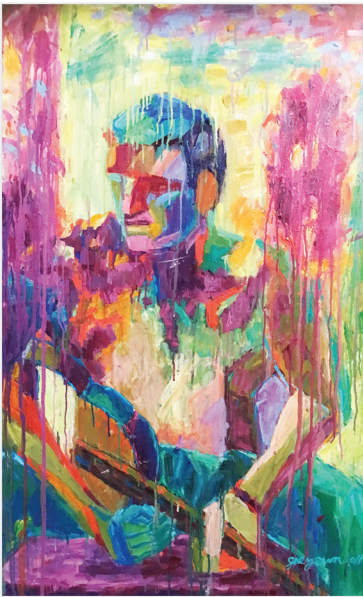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본래왔던 본향, 영원불변의 우주에대한 그리움으로, 먹이 말고, 예술과 지적 영양분을 필요로한다. 예술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반응이다(Art is man's response toward the universe) 라고 했던 어느철학자의 예술론 처럼 예술행위는 자연과

의 교감행위이며, 예술작품을 만드는 행위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진, 선, 미의 실체인 우주와 교감 하는 행위이다. 우주와의 교감 행위는 우주의 기를 받아들이수 있는 적정 청정한 상태, 즉 고요한 호수물이 주위의 풀, 꽃, 나무들의 영상을 그대로 비춰내는 적정 관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식물들이 역고의 정적 속에 반짝이는 별빛, 햇빛을 받아 싹을틔우고 성장 하듯 모든 예술은 정적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는 첫번째로 해야할 작업은 바깥 생존의 세상에서 만나야 했던 온갖 소음과 먼지를 털어버리고, 내 존재의식의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어 내 존재와 우주가 만나는, Hegel이 말했던 가장 자유로운 상태 (I am free when I am within me)가 되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 줄기 신성을 끌어내는 작업이다.

예술가 훈련은 자연해조의 모방인 사실주의 훈련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이 예술가는 자연해조를 받아들이는 감각과 직관을 훈련하고 직관의 촉각이 받아들이는 우주 자연의 해조를 주어진 예술언어, (음정, 공간, 색채를 조형언어) 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해서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기술자이다.



작품설명: 이작품은 내가 교과서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이다. 인간 지능과 지혜의 성장으로 인간이 우주자연을 이해하는 발전의 역사인 미술사의 온갖 기법이 있다. 인상파의 차고 따뜻한 색채 구사술, 입체파의 공간, 추상표현 주의 등의 기법이 있고 50년대경 Pollock, DeKooning 등 추상 표현 주의 작가들이 시작, 오늘날 2000년대 Twombly 등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홀리고 터지는 역동적인 힘을 표현하고 있는 화면 이다.

인간 자신을 소우주로 볼 수있게 된 실존철학에 이른 인간의 지능은 자기 안에 있는 영감의 촉각과 자신의 리듬으로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예술창작에서 예술가자신의 영감과 리듬이 중요한 역할을한다.

Kant는 감동을 줄 수있는 좋은 작품은 오로지 천재에 의해서만 이루어 진다고 했는데, 이 천재란 Bergson이 강조한 영감(intuition)처럼 모든 인간에 주재하고 있

는 신성이다.

내 안에 존재하고있는 신성(intuition)인 영감이 우주자연의 해조에 반응하고 그 영감의 힘과 자신의 리듬으로 새로운 우주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나의 그림이다. 걸잡을 수 없이 애가타고 황량한 방향 같은 꽃사랑의 고통같은 수련, 재료(pigment)를 다루는 기법, 조형언어인 공간 색의 구사술을 익히는 수련은 어느정도 완성했다고 생각 하지만 아직도 창작 자체는 무당이 신들릴 때 겪는 신비한 고통, 임산부의 아픈 진통 같은 작품을 낳는 고통이 따른다. 마치 현악기 주자들이 정확한 음정과 음색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 내야하듯, 정확한 색채와 터치를 만들기 위해, 각 붓의 기능과, 재료를 다루는 기법과 현대화에서 그림의 중요한 요소인 표현적인 효과를 내는, 우연히 흘러내린 선, 튀긴 점 하나 하나를 마치 어린애 다루듯, 화면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마치 링 위에서 생사의 결투를 하는 권투서수와 같이, canvas와 필사의 도전을 한다. 떨어져 내리는 꽃잎처럼 쏟아져 내리는 피아노곡 음정처럼 쏟아져내리는 색채의 파편들이 화면 위에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좇어모아 몇번이고 화면을 만들고 부수며, 지순한 삼매경에 끝없이 자매질한다.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표현적 요소, 기운생동과, 풀어지지않은 긴박감, 보는 이의 가슴을 얻을 수있는 어떤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 내놓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되 붓을 놓아 끝낸다. 보는 이들의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작품을 하고싶다.

반짝이는 날카로운 영감의 촉각으로 마들어 지지않은 어정쩡이(mediocre)의 작품이나, 녹슨 시들은 상투적(manerism)인 작품은 그 누구의 가슴도 울릴수 없다.



강은규 (농대 95)

/ 주식이야기(중) /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의 조건

<지난회에 이어서>

만약 이 변동이 심하거나 중간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을 수록 그 차이는 더욱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단위: \$>

년수	수익률	잔액	년수	수익률	잔액
1	5.00%	1,050	1	50.00%	1,500
2	5.00%	1,103	2	-40.00%	900
3	5.00%	1,158	3	50.00%	1,350
4	5.00%	1,216	4	-40.00%	810
5	5.00%	1,276	5	50.00%	1,215
6	5.00%	1,340	6	-40.00%	729
7	5.00%	1,407	7	50.00%	1,094
8	5.00%	1,477	8	-40.00%	656
9	5.00%	1,551	9	50.00%	984
10	5.00%	1,629	10	-40.00%	590
평균 수익률		5.00%	평균 수익률		5.00%

그럼 이 문제가 진짜 현실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자. 앞에 고객과 팀장의 상담 중에 1993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11.13%였다고 했었다. 팀장은 만약 이 시기에 고객의 은퇴 자금 50만불을 투자했었다면, 25년 후 투자금은 7백만불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단위: \$>

년수	수익률	잔액	년도	S&P 500 수익률	잔액
1	11.13%	555,667	1993	9.97%	549,835
5	11.13%	847,603	1997	33.10%	1,248,128
10	11.13%	1,436,862	2002	-21.97%	1,211,671
15	11.13%	2,435,778	2007	5.48%	2,201,985
16	11.13%	2,706,962	2008	-36.55%	1,397,108
20	11.13%	4,129,146	2012	15.89%	2,390,374
25	11.13%	6,999,753	2017	21.64%	4,942,782
평균 수익률		11.13%	평균 수익률		11.13%

실제 수익률은 25년간 매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변동했다. 그렇게 달려온 25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팀장의

설명과 같이 11.13%였다. 하지만 투자금 수익은 5백만불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25년간 2백만불이나 차이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매년 수익률의 순서가 달라지면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위 상담 사례의 고객처럼 은퇴를 해서 매년 돈을 찾아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25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의 순서는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금의 6%씩을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아래 표의 왼쪽의 결과를 보면 25년간 총 75만불을 인출하고도 잔액이 220만불이 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결과는 다른 조건은 모두 같은데 수익률의 순서만 바뀌어 있다. 만약 고객이 은퇴한 해가 1993년이 아닌 2000년이였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단위: \$>

년도	수익률	인출액	잔액	년도	수익률	인출액	잔액
1993	9.97%	30,000	516,855	2000	-9.03%	30,000	427,550
1994	1.33%	30,000	493,300	2001	-11.85%	30,000	350,442
1999	20.89%	30,000	1,389,507	2006	15.61%	30,000	267,801
2000	-9.03%	30,000	1,236,719	2007	5.48%	30,000	250,844
2001	-11.85%	30,000	1,063,725	2008	-36.55%	30,000	140,120
2007	5.48%	30,000	1,262,367	2014	13.52%	30,000	37,033
2008	-36.55%	30,000	781,908	2015	1.38%	30,000	7,130
2009	25.94%	30,000	946,917	2016	11.77%	7,130	0
2015	1.38%	30,000	1,677,124	1997	33.10%	0	0
2016	11.77%	30,000	1,841,041	1998	28.34%	0	0
2017	21.64%	30,000	2,202,972	1999	20.89%	0	0
평균		11.13%		평균		11.13%	

결과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17년째에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 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왼쪽의 경우는 은퇴 초반에 수년간 엄청난 수익을 본 반면, 오른쪽의 경우는 반대로 은퇴 초반에 몇년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은퇴를 하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것은 물가를 고려

하지도 않은 결과이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잃었기 때문이다. 11.13%의 수익률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상황에서도 '잃는 것'은 충분히 모든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좋은 수익률로 화려하게 수놓은 제안서만 보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된다.

정확히 어떤 위험을 이겨내야 하는가? 투자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좋은 펀드를 찾아 쇼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펀드의 과거 수익률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 통계는 보통 그 결과들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숫자들만 보고 그 결과가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그 요약된 결과 속에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들이 희석되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은 당장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 해가 되어 돌아보면, 올해의 통계치 속에서는 그 위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똑같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듯이, 보통 투자자들은 펀드를 쇼핑할 때 수익률에 근거하여 판단하곤 한다. 투자처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다양할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이 같다면 그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투자에서 감당하게 될 위험이 서로 다르다면 어떨까?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이다.

투자 옵션 1 – 최대 가격 하락률 (-5%)

투자 옵션 2 – 최대 가격 하락률 (-25%)

자, 이제 어느 옵션에 투자를 하고 싶은가? 이 상황은 투자하고 있는 동안에 각각 투자액의 5%, 또는 2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비슷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5배나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람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위험을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음회에 계속>

크루즈 여행신청서

C R U I S E
R E S E R V A T I O N
A P P L I C A T I O N

신청자	성명(한글)	영문이름(English)	생년월일
연락처	Address		
	Cell		
신청개빈종류	발코니(Balcony)	창문(Window)	인사이드(Inside)
DEPOSIT	예약금 \$ (잔액은 출발 91일 전까지 완납해야합니다)		
금액(Total Amount)	납부(Payment)	잔액(Balance)	
신청인 _____ 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인(서명) _____ / / 2019			

서울대미주동창회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www.snuaa.org

제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 B E R M U D A C R U I S E —

에메랄드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6/25/2020 (목)~6.29 (월) - 4박 5일

/ 여행일정 /

Day 1	Thu New York City	Depart 4:00 PM
Day 2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3	King's Wharf / Arrive 8:00 AM	Depart 4:00 PM
Day 4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5	New York City	

미주동창회(회장 신응남)는 내년 제 29차 평의원 회의를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일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색적인 행사로 4박 5일간의 버뮤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Manhattan Cruise Terminal에서 출항, 버뮤다로 향하는 이번 크루즈 여행은 쪽빛, 에메랄드 빛의 버뮤다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하고, 미주동문들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동문들은 선상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KING'S WHARF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옵션 관광, 개인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의 목적은 동문간 협동과 친목을 나누며 단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 동문간 마음을 나누는 큰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등록마감 2020년 1월 15일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이나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 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여행비용 /

인사이드	— \$ 9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오션뷰	— \$1,0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발코니	— \$1,34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참여 문의: 백옥자 818-395-1967
동창회 718-463-3131
피터김 213-388-4000

◆ 예약때 필요한 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발급일, 만기일 (신청서 참조)

◆ 크루즈 타실 때 필요한 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항공권 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하시고 취소가 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온기철 (의대 65)

/ 숨겨진 역사이야기(상) /

조선노비, 왜군되어 조선병사에 대한

-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국민도 나라를 버린다

유성룡은 무능한 왕 선조를 모시고 안하무인 격인 명군을 달래가며 무려 7년동안 계속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운영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자기가 겪은 전쟁 경험담을 낱말이 적어서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동안의 잘못을 미리 징계하여 후한에 대비하자고 책의 제목을 '징비록'이라 하였다.

대국 명나라에 국방을 의지하고 자국의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쟁의 피해는 막대했다. 경작면적의 1/3이 소실되었다. 어떤 연구결과는 조선인구가 1/7로 줄었다고 한다. 너그럽게 보아서 인구가 반토막이 났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에 기근과 전염병이 겹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위정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에 감복할 뿐이었다.

다시는 이런일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유성룡이 써놓은 '징비록'은 거들 떠 보지도 않았다.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이 30여년을 허송세월하다가 만주에 여진족이 세운 신흥 금(청)나라에게도 당하고 만다. 징비록은 조선시대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 갔다. 명치유신 전후에 일본관리가 조선에 와서 이 책을 보고 감탄하여 일본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2,3년전에 징비록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책의 내용에 충실해서 종래의 임진왜란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왜군이 한양에 접근하자 선조는 신하와 궁녀를 데리고 도주했다. 선조가 궁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경복궁에 불길 이 치 솟았다. 왕은 그 불길을 뻔히 바라다 보았다. 물론 불을 지른 것은 왜군이 아니었다. 방화범은 노비들이었다. 불에 탄 건물은 형조와 장예원이었다. 장예원은 노비를 관리하는 관청이었고 거기에는 노비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군이 되어서 조선병사들에 대항해서 싸웠다. 일본군의 약반이 조선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노비들의 모반을 알게된 선조는 조선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명나라로 망명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밖에 없다고 믿었다. 이때 유성룡이 방책을 내놓았다. 노비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공을 세우면 노비신세를

면해 줄 뿐만아니라 벼슬도 주자고 제안했다. 왜군 한명의 머리를 베어오면 노비를 면해 주고 두명이면 국왕 호위무사가 되고 세명이면 벼슬을 할 수 있고 네명이면 수문장을 시켜준다는 것이었다. 유성룡은 "이와같이 하면 비록 끓는 물에 들어가고 불길을 밟더라도 전력을 다해 적을 무찔러 열흘도 못가서 목잘린 적의 머리가 쌓여 탑을 만들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예상대로 노비들이 의병으로 몰려 들었다. 그리고 양반과 노비로 구성된 부대도 만들 수 있었다.

물론 노비들의 참전이 임진왜란을 승리

명장 이순신을 잡아들였던 조선 조정은 일등공신 유성룡도 파직했다. 유성룡은 피눈물을 삼키며 제발 그러지 말자고 징비록을 집필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이다. 물론 노비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라는 것이 있었다. 일종의 신분증이다. 요즘 한국의 주민등록증이나 미국의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신분증이다. 그러나 신분계급을 명기했고 호패는 어디사는 아무개라는 증명서이다. 호패는 서얼, 상민, 노비라고 적혀 있었다.

분제도로 사회질서를 잡고 과거제도로 관료를 선발하여 관료제도를 확립했다. 중국이 그랬듯이 근대사회가 도래하기까지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시대에는 선진적인 제도였다. 그리고 국방은 대국에게 맡기고 조공을 바치는 종속국의 위치를 감수하는 사대주의를 택했다. 이 신분제도와 사대주의를 확립한 왕이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은 근대에 와서 망국의 원인이 되었다. 노비제도를 확고히 하여 사대부들에게 유리하게 해주었다. 고려, 태조, 그리고 태종때까지 계속되었던 천제 즉, 하늘에 대한 제사를 폐지했다. 세종은 중화의 주인은 명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제사는 명만이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조선노비제도연구의 대가인 이영훈 교수는 노비제도는 세종대왕 때 확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고려말에서 조선초기만 해도 많은 인구가 사냥을 하고 화전을 가꾸며 일정한 주거지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인구가 많았다. 이들을 정착 시키기위해서 노비제도를 이용했다고 한다. 노비는 양반의 소유물이었다. 어떻게 보면 양반의 보호하에 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건국초기에는 양민과 노비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했다. 태종은 이것을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게 하여 노비의 자손이 노비신분에서 벗어나기 쉽게 해 주었다. 양반들은 노비의 수가 줄어드는 부계에 따르는 제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세종은 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모계의 신분에 따르게 해주었다. 단 종때에는 모계든 부계든 한쪽만 노비면 노비가 되게 했다. 세조가 이를 부계에 따르게 했으나 곧 번복 되어 모계나 부계 한쪽이 노비면 자손은 모두 노비가 되는 제도가 조선 말 까지 계속 되었다. 그래서 노비의 숫자는 날이 갈 수록 증가 했다. 양반의 재산은 날로 증가했다. 숙종16년 1690년에 대구부의 신분구성은 양반 9.2%, 양민 53.7%, 노비37%였다. 선조 39년 1606년 단성 지역은 노비가 64%, 광해군 1년 울산지역은 노비가 47%였다. 노비는 양반의 재산목록이었고 사고 팔고 했다. 가격은 말 한마리 값과 같았고 666일 노동 가치에 해당했다.

<다음회에 계속>

임진왜란때 노비들, 일본군으로 조선병사들에 대한

노비문서 저장된 노비 관리 관청 '장예원' 불태워

유성룡, 일본군과 맞선 노비에 신분상승·벼슬 제안

승리 후 조선 조정, 유성룡 파직시키며 약속 파기

로 이끈 것은 아니었다. 명의 원군이 없었으면 조선은 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너그럽게 봐주어서 육지에서는 권를, 바다에서는 이순신 그리고 의병들이 왜병을 퇴치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의 사망도 한몫 했다. 명군을 조선에게 유리하게 달래가며 전쟁을 관리한 유성룡의 공은 그 누구의 공보다도 큰 것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명맥을 유지한 왕과 조정대신들은 전쟁 일등공신 유성룡 죽이기에 나섰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노비들은 전쟁이 끝나면 노비신분에서 벗어나 벼슬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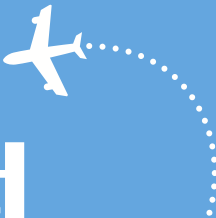
그러나 노비의 신분상승은 양반에게는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일이었다. 노비는 그들의 재산이었고 집안일과 농사를 지어주는 노동력이었다. 권력은 양반에게 있었다. 약속한 사람은 유성룡이었다. 그들은 유성룡을 파직하고 노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조선최고의 해군

임진왜란이 끝나자 교린국이라고 업신여겼던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날로 강성해 갔다. 한편 명나라는 내부부패와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력소모로 점점망해가고 있었다. 조선조정은 은혜를 베푼 명을 계속해서 섬기느냐 새로운세력인 금을 따라야 하느냐로 목숨을 건 당파싸움을 벌렸다. 그동안에 부국강병을 해야 나라가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다고 적혀있는 징비록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일본군이 조선에서 떠난지 30년만에 금나라가 쳐들어 왔다. 명의 은혜를 못잊어 하는 조선의 버르장머리를 잡아 놓기위해서였다. 금나라군대가 안주성으로 쳐들어 왔다. 평안도 안주감사 윤환은 병사들에게 아아가서 싸우라고 명했다. 그러나 병사들은 자기들의 호패를 성위에 쌓아 놓고 "너희들 양반들이나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별 저항없이 함락되었다.

조선은 유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미주동창회 특별한 혜택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관악캠퍼스 2020 단기과정

* 지원료 60,000원
* 교내외 기숙사 선착순 이용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3주	2월 10일 - 2월 28일	1월 10일	770,000원	* 3주 과정 - 주5일, 오전 4시간 한국어수업 * 5주 과정 - 주4일 오전 4시간 한국어수업 주1일 한국문화 체험 (판문점, 박물관, 요리체험 등)
5주	6월 29일 - 7월 31일	5월 29일	1,540,000원	
3주	8월 3일 - 8월 21일	7월 3일	770,000원	

* 이외에도 관악캠퍼스에는 정규과정, 저녁반, 15주 과정 등이 있습니다.

시흥캠퍼스 2020여름 프로그램

* 지원료 60,000원
* 시흥캠퍼스 기숙사 선착순 이용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스마트 초단기 한국언어 문화과정 (2주)	6월 8일 - 6월 19일	5월 4일	1,000,000원	* 한국어 수업 - 총 6일, 하루 6시간 * 문화 수업 - 총 4일 (K-POP 댄스, K-Beauty, 한국 요리, 태권도 체험 등)
	6월 15일 - 6월 26일	5월 11일		
	8월 24일 - 9월 11일	7월 20일		

* 이외에도 시흥캠퍼스에는 스마트 한국어과정(8주), 진학 목적 한국어 집중과정(7주) 등이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특별 혜택

- 미주 총동창회 추천 우수 동문자녀 장학금
(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등록금 전액감면각 1명)
- 미주 총/지역동창회 총34개 지역 추천 동문자녀 장학금
(각 3인 한정/관악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10%감면)



박준창 (인문 79)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우편 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

‘The postman always rings twice’

지난 주말, Youtube surfing을 하다가 우연히 이 영화 제목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과 1981년에 두번씩이나 만들어진 영화임을 또 알게 되었다. 대학 시절 제시카 랭과 잭 니콜슨 주연의 1981년 영화가 아련히 생각이 났다. 특별한 장면은 기억나지 않고 그냥 시내에 걸린 영화 포스터가 굉장히 야했다는 기억 밖에는 없다. 먼저 1946년 판을 봤다.

무대는 대공황 시대의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가 마을. 남자 주인공 프랭크는 타고난 떠돌이 (drifter). 한 직장,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에 발이 그렇지 않단다. “내 발. 나로 하여금 이곳저곳 돌아 다니게 하고 싶어 근질거린다”고 (“My feet. They keep itching for me to go places.”). 그날도 히치 하이킹으로, 구인 광고가 걸려져 있는, 나이 든 남자 닉이 운영하는 Twin Oaks 라는 식당에 온다. 닉은 일꾼이 와서 좋아하며, 손님 맞이하는 동안 굽고 있던 햄버거를 프랭크보고 보라 하고 서는 나간다. 이때 립스틱이 도르륵 굴러와서 쳐다 보니 미끈한 여자의 다리가 먼저 보인다. 짧은 하얀 반바지에 배가 드러나는 짧은 하얀 색상의, 머리에는 하얀 터번을 둘렀다. 큰 눈에 젊고 예쁘고 도도하고 당당하고 도발적이고 뇌쇄적이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없이 립스틱을 말도 없이 받아서 남자가 보는 앞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른단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가 버린다. 혼이 빠진 프랭크는 햄버거



를 태우고 만다. 그리고, 여자 때문에 2-3일만 있으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 이곳에 머물기로 한다. 이 여자가 다름아닌 닉의 아내 코라.

두 사람의 나이 차이에 코라가 남편을 바라 보는 것을 보면 벌써 코라는 닉에게 정이 없음을 대변 알 수 있다. 첫날 당장 두 사람은 남편이 옆 방에 있는데도 짧고 격렬한 키스를 나누고, 그리고 이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남편은 프랭크와 코라가 함께 춤을 추도록 하기도 하고 해변가로 같이 내려 보내기도 한다. 보는 관객들은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다. 금방이라도 이 두 남녀가 사고칠 것 같아서...

관객들의 우려대로 이들은 기어코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데... 1940년대 영



내가 그려 본 코라와 프랭크. 코라가 들고 있는 것은 립스틱이다. 금발의 코라는 너무 아름답다.

화라 그런지 격렬한 정사는 고사하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옷 벗은 장면조차 없다(해수욕 장면 외에는). 그리고... 코라는 드디어 그녀의 femme fatal기질을 보여 주는데... 닉을 죽이고 식당을 둘이서 차지 하자는 것... 그리하여 그들은 닉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그러면 제목이 왜 우편배달부는 벨을 두 번 울린다 일까? 영화 어느 장면에서도 우편 배달부는 등장하지 않는데 말이다. 그 대답은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다.

우편 배달부가 그냥 평범한 우편물이면 벨을 한번 울리고 간다. 하지만 전보라든지 긴급한 것이면 확실히 집 주인이 알 수 있도록 두 번을 울린다. 대개 이런 전보는 나쁜 소식이 대부분. 프랭크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디에 있건 우리는 두 번째 벨 소리는 확실히 듣는다고. 코라에게 두 번 벨이 울렸고, 이제 자신에게 두 번 울린다고.

코라는 자신의 목숨으로 닉의 죽음에 대해 갚았고 이제 자신은 자신의 목숨으로 코라의 죽음에 대해 갚는다고.

두 번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닉은 첫 번째 죽음은 면했지만 두 번째는 면하지 못했고, 코라와 프랭크는 첫 번째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잘 빠져 나왔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코라는 사고로, 프랭크는 사형으로 두 번째에서는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1946년 판 영화는 기대보다 훨씬 재미있다. 흑백영화인데도 라나 터너의 미모와 매력이 물씬 더러난다. 오히려 흑백이라 더 깨끗한 맛이 있다. 내용상 당연히 선정적이어야 할 영화가 조금도 선정적이지 않다. 적나라한 노출과 그래픽한 폭력으로 점철된 요즘 영화와 달리 깔끔함이 느껴진다.

11월 후원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숙 (가정 70)

김광수 (자연 73)

민홍기 (문리 61)

이범식 (공대 61)

이상강 (의대 70)

이상원

임춘수 (의대 57)

조형원 (약대 50)

정량수 (의대 60)

조정현 (수의대 58)

11월 종신이사비

정동구 (공대 57)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후원에 감사드리며 동문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86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흥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회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종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중신이사 (고인)	[중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	--	--	--	---	---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업소록 광고비 강호석 (상대 81) 240 백승원 (의대 73)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준영 (치대 74) 240 이종묘 (간호 69) 240 정재훈 (공대 64) 480 김원철 (농대 70) 240 염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광고비 서동영 240 뉴밀레니엄 बैं크 1,000 키스프로덕트 1,500 미래에셋 (~10/2019) 1,200 듀오(10/24) 400 (11/14) 400 나눔 차수만 (약대 71) 300 김정화 (음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2,000 오인환 (문리 63) 300 박원준 (공대 53) 3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2019/7/1~2020/6/30) 장학금 이용락 (공대 48)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오인환 (문리 63) 200 임필순 (의대 5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이규만 (문리 61) 25 조형원 5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이채진 (문리 85) 100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특별후원금	 28차 평의원의회의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웅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신응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곽선섭 (공대 61) 300 권문웅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율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1,200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종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종철 (의대 57) 200 성기로 (사대 57) 200 손재옥 (가정 77) 500 송웅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응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무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행 (공대 48) 1,000 이충무 (의대 69) 500 정정옥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추재옥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종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렬) 500	 일반후원금 남가주 이범식 (공대 61) 200 임춘수 (의대 57) 200 이창신 (법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370 백옥자 (음대 71)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위종민 (공대 64) 100 뉴욕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랑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강 에드워드(사대 60) 400 조명애 (간호 47) 375 곽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200 허병렬 (사대 42) 100 이상원 25 	뉴잉글랜드 김광수 (문리 77) 200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정환 (공대 52) 200 미네소타 문성인 (공대 88) 50 메사추세츠 김광수 (자연 73) 200 버지니아 민흥기 (문리 61) 5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강영국 (수의 6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성길 (의대 71) 200 소진문 (치대 58) 200 오동환 (의대 65) 200 김일훈 (의대 51) 200 한재은 (의대 59) 200
--	--	---	--	---	---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l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십니다.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C: 909-229-777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통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p.
조임현 (간호대 72)
T: 213-487-3253 / im.cho@axa-advisors.com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A, CA 90010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종 (문리대 61)
T: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흥조 (치) · 이영목 (공) · 이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옥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곽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주재옥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이창길 (자),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옥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옥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증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
SINCE 2000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Bring the Salon Home
KISS[®]

아름다운 세상, **KISS**가 이어갑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뷰티전문기업으로 전세계 더 많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KIS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www.kissusa.com

김광호 (문리 62), 신규천 (상대 73), 한규상 (미대 84), 김영훈 (공대 93)